



주간통일정세 2012-01(2011.12.26~2012.01.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0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동지는 사랑의 화신”(12/26,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 이후 북한의 새 지도자에 오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상 강화에 주력해온 북한이 26일에는 ‘인민적 지도자’로서 김 부위원장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매체들은 한파가 맹위를 떨친 24~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의식장 주변에 봉사대, 의료초소, 더운물 매대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등장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소개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김 부위원장이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도 “김정은 대장동지께서는 야외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과 호상(護喪)을 서는 사람들이 모자와 머릿수건, 장갑과 귀걸이를 착용하게 하고 조의를 표시할 때만 모자와 머릿수건을 벗도록 했다”며 이를 ‘크나큰 은정’으로 표현
- 중앙방송은 “수도의 여러곳에 차려진 조의식장을 찾는 주민들이 사탕가루 물을 받아들고 커다란 격정에 휩싸여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진정 그이(김정은)는 사랑의 화신이라고 시민들은 격정을 토로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당 중앙위 수반’ 잇따라 언급(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26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중앙위원회 수반’으로 잇따라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 조선의 오늘, 내일’ 제목의 글에서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강조
- 이에 연합뉴스는 당 중앙위원회의 수반은 당 총비서를 의미하므로 김 부위원장이 이미 당 총비서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북한군 장병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하는 내용을 다른 기사에서도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 동지의 군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전당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이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모든 당조직과 일꾼, 당원들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며 천만대중을 산약같이 일떠세우고 있다”고 밝힘.
- “김정일 마지막 현지도한 곳서 56만명 추도”(12/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지도했던 평양시 하나음악정보센터 조의식장에 56만5천800여명의 군인, 노동자, 학생 등이 찾아 추모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 중앙방송은 이날 “통일거리 하나음악정보센터에 꾸려진 조의식장에 20일 오후부터 23일 오후까지 백발의 늙은이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근 56만5천800여명의 각계층 인민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조의식장을 찾았다”고 전함.
- 北김정은 또 참배…“당·국가·군대 영도자” 호칭(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또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과 함께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영생을 기원하시어 목상하셨다”고 밝힘.
 - 특히 중앙통신은 김 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영명한 영도자’로 칭하기도 함.
 - 이날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수행
- 北매체 ‘이희호·현정은 조문’ 부각(12/27, 노동신문)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소식을 주요 매체를 동원해 상세히 보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전에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일행과 현대그룹 회장 일행 조의표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싣고 조문 장면을 상세히 소개
- 신문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의위원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평화센터 리사장 리희호 여사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다”고 전함.
- 또 “일행은 김정일 동지의 령전에 묵상했고 그이의 영구를 돌아봤다. 김정은 동지께 그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렸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알림.

● **이희호·현정은, 北김영남 면담(12/2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차 평양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공식 직함상 북한의 최고 수반인 김 위원장이 조문단의 평양 출발 전에 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전 조찬 이후에 면담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北헌법절 맞아 ‘3대세습’ 정당화(12/2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선군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위대한 김일성헌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의 영생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주는 김일성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조국은 김일성조선으로,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됐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으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다”고 강조
- 또 ‘김일성헌법을 가진 크나큰 긍지’라는 제목의 글에선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것을 규정한 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어려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
- 이 매체는 ‘정치상식’ 코너에서는 “김일성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화국을 명실공히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며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훌륭히 건설할 수 있는 위력한 법적 무기를 갖게 됐다”고 평가



- **김정일 영결식…김정은 마지막 참배(12/2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10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마지막 참배를 시작으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영결식은 영결보고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되며,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평양 시내를 돌며 주민에게 작별인사를 고하며, 영결식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시신은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
 -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은 전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다섯번째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애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일 최대유산은 핵보유국”(12/2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3대 ‘혁명유산’으로 ‘핵과 위성’ ‘새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꼽음.
 - 신문은 김 위원장의 최고의 유산은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이라며 “대국들의 틈에서 약소민족의 한 많은 민족을 가슴을 당당히 펴고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존엄 높은 인민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준 우리의 핵과 위성”이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또 김 위원장의 다른 유산으로 “현대화의 새 역사, 지식경제시대의 민족의 앞날을 당겨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과 “피눈물로 짙 찬 슬픔의 대하를 강성국가에로의 대진군 대오로 격변시킨 김일성 민족의 정신력”이라고 꼽음.
 -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백두산혁명 가문의 계속혁명의 철학”을 강조하고 “인민을 이끌어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을 더 풍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유혼통치’가 이뤄질 것임을 거듭 시사

- **북한 새 지도부 김정일 영구차 호위(12/2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새 지도부가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서 영구차 옆을 호위하며 걸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영구차 오른쪽에선 김 부위원장 뒤로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이, 김 부위원장 건너편 쪽에서는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등이 영구차를 호위했으며,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북한 권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영남 “김정은, 김정일 위업 완성할 것”(12/28,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영남 위원장은 면담에서 6·15, 10·4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일을 김정일 위원장이 다 이루고 간 일인데 김정은 대장동지가 있기에 인민은 든든하다. 최고영도자인 김정은 대장동지는 비범한 품모로 김일성, 김정일과 똑같은 분이다. 영도를 충직히 받들고 김정일 장군의 위업을 완성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영도’ 선언…전역서 추도대회(12/29, 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영도자로 하는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주석단 중앙에는 김 부위원장이 등장했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도열해 ‘김정은 시대’를 과시
- 대회 참석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계승과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한동안 ‘유훈통치’를 통해 권력 기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최태복 당 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추도대회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며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담력과 배짱을 이어받은 최고 영도자”라고 김 부위원장을 치켜세움.
- 그는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며 “그이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
-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연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
- 또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인민군대가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김정은 대장을 잘 받들고 그의 영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김정은 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
- 조선중앙TV 등 북한 방송매체는 전날 김 위원장 영결식에 이어 이날 추도대회도 생중계로 주민들에게 전함.



- **北, 김정일에 ‘공화국영웅’ 칭호 수여(12/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한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명예칭호인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중앙통신은 또 이날 ‘천만군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인사’라는 제목의 또다른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1975년 2월과 1982년 2월, 1992년 2월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으시었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공화국영웅’ 칭호를 모두 4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령’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혁명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밝힘.
 - 정령은 특히 김 위원장의 공적과 관련해 “북한을 핵억제력을 보유한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고 우리민족끼리 나가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셨다”고 평가

- **北김정은 군최고사령관 올라…군권 장악(12/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북한은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의 ‘10월8일 유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 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이 참가했다”며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셨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밝힘.
 -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도 채택

- **北신년사 ‘김정은=유일영도’…충성 강조(1/1, 노동신문, 군기관지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 북한은 1일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충성을 강조
 - 공동사설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5년 만에 재등장했고, 남북간 ‘조문갈등’과 관련해 대남비난도 실렸으며, 또 ‘강성부흥’ ‘선군’을 강조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의지를 피력
 -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군기관지 조선인민군,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3개지(紙)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실음.

- 사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 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라며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
- 이어 “군대에서는 혁명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 정치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노동당에는 “우리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
- 공동사설은 또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며 2007년 공동사설 이후 5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재개
-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작년 김 위원장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을 강조해 올해 북중, 북러관계 강화를 예고
- 남북관계와 관련, 공동사설은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 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 나선 남조선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혀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공동사설은 올해가 ‘강성대국 원년’임에도 별다른 경제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당의 강성부흥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여나가야 한다”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만 강조

● 北김정은 첫 공식활동…탱크부대 시찰(1/1,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영전에 경의를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



■ 기타 (김정은 동향)

- 김정은(*당·국가·군대의 영명한 영도자로 호칭), 12.26 김정일 靈柩를 다시 찾아 애도 표시(12/26, 중통·중방·중앙TV)
-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강석주, 변영립,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참가
- 김정은(黨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12.27 김정일 靈柩에 애도 표시(12/28,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강석주, 변영립,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北, “김정은이 大國喪을 당한 첫날부터 나라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전국 黨조직들이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강조(12/26, 노동신문)
- “김정일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국가건설염원을 빛나게 실현하는 것은 가장 신성한 의무이고 도덕의리”라며 “함남의 불길,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 및 6.15·10.4선언의 철저한 구현으로 조국통일위업의 승리 이룩” 강조(12/28, 중통·노동신문)
- ‘김정일 영결식’, 12.28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실황중계(12/28, 중통·중·평방·중앙TV)
- 김정은(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로 호칭),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김경희,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강석주, 변영립,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김낙희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을 비롯한 국가 장의위 성원들, 軍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軍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등 참가
- 김정일 추모 중앙추도대회, 12.29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2/29, 중통·중·평방, 중앙TV)
- 주석단 : 김정은, 김영남(추도사),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黨비서/黨대표로 연설), 최태복(사회),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강석주, 변영립, 장성택,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軍 대표로 연설),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김영대, 남승우(총련 부의장),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리용철(청년동맹 1비서/청년학생 대표로 연설) 등/*南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도 행사에 참가



나. 경제

● 북중 교역 사상 첫 50억달러 돌파(12/29, 연합뉴스)

-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급증, 사상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밝혔다
-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북한의 대중 수출은 29억2천만달러, 수입은 22억6천만달러로 총5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31억달러)에 비해 약 70% 증가
- 북중교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을 중국에 대거 수출하고 석유제품과 원유 등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
-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 교역이 2009년 큰 폭으로 감소(33%)한 뒤 2010년 이후 2년째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이 크게 늘었고, 남성의류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급증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 중단된 北식당들 영업 재개...북중교역 정상화(12/30,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30일 북한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丹東)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경식당을 비롯한 단둥의 북한 식당들은 이날 점심부터 정상 영업에 나섰다
- 이날부터 북·중 교역이 완전 정상화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단둥 해관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으며, 해관 앞 도로를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려는 트럭들이 꼬리를 물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고 뉴스는 전함.

● “유니세프, 北어린이 영양지원 지연될 듯”(12/31,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의 여파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영양식 지원이 지연될 전망이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실시한 어린이들에 대한 예비 영양 실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검증 작업이 김 위원장에 대한 장례일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에 대한 이 기구의 영양지원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기타 (대내 경제)
 - 北, “김정일의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실현할 선군청년전위들의 애국적 열의가 높이 발휘되고 있다”며 종합된 자료(사망보도 이후 7일 동안 자료) 소개(12/28, 중통)
 - 경공업부문(8만여명 청년들) : 생산계획 139% 수행, 협동농장들(26만7,000여명) : 84만4,800여t 거름생산, 전력생산부문(2천여명) : 전력생산 늘이는데 크게 기여, 탄광부문 연합기업소들(3만2,000여명) : 26일 현재까지 15만7,000여t의 석탄생산 등 연일 새 혁신, 새 기록 창조

다. 사회·문화

● 北·中 변경지역 출입 봉쇄 (12/2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변경지역 출입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앞두고 완전히 봉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바로 접해있는 중국 훈춘(琿春)과 투먼(圖們)시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장을 앞두고 매우 비통한 상태라면서 외국인인 변경지역에서 북한을 구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힘.
- 두만강과 투먼강 등이 교차하는 룡징(龍井)시도 변경지역의 출입로를 완전히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훈춘과 투먼시 관계자는 변경지역에서 언론사 취재는 물론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의 변경지역 출입을 금지했으며 금지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북한 내부 사정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 이렇게 변경지역 통제가 강화한 것은 김 전 위원장 사망 후 외국인론과 외지인들의 출입으로 북한 사정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새지도부, 탈북자가족 산간벽지 추방”(12/29,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서 탈북자가 있는 가족들을 산간벽지 등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29일 전함.
-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당국이) 변경지역 주민들의 수입·지출 내역과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불법 월경 전력이 있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주민, 한국산 물품을 거래한 적이 있는 주민 등도 집중조사 대상에 올랐



다고 소식지는 덧붙임.

- 소식지는 “변경에서 반동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새 지도부는 본보기로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가족을 추방했다”며 “그러나 한국돈 100만원을 뇌물로 주면 추방을 피할 수 있어 탈북자가 있는 가족이 실제 추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함.

● **김정은, 北우표에 첫 등장(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상을 모신 우표 2종을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했다”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우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함께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모셨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나머지 1종의 우표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우표에는 태양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모시고 ‘김정일화’와 목란꽃을 형상했다”고 소개

● **北 ‘김정일 금화·은화’ 발행키로(12/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0주년을 기념하는 금화와 은화를 발행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고 금화·은화 발행 배경에 대해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핵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면시켜주신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려는 것”이라고 설명
- 중앙통신은 이날 ‘평양방직공장’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으로 개명키로 한 상임위의 또 다른 결정사항도 함께 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후진타오 “한반도 평화안정은 공통의 이익”(12/26, 교도통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교도통신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
- 교도통신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노다 총리와 회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안정유지와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관련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도 보편적으로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후 주석은 “관련국이 냉정함을 유지해가면서 6자 회담을 재개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으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 싶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등과 함께 노력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임.
- 노다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과 중국이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

● **中외교부 “북한 안정·발전 중요”(12/2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조선(북한)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관련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여긴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국들이 상호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우호적인 이웃 국가인 중국과 조선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에서 중요한 행위자”라며 “중국은 조선 인민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한편 이날 서울에서 한중 간 제4차 고위급 전략 대화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홍 대변인은 “쌍방은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

● **中 군·외교 간부들 北대사관 조문(12/28, 조선중앙통신)**

-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군 고위간부들이 지난 27일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조의 방문에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총정치부 주임인 리지나이(李繼耐), 부총참모장 마샤오펜(馬曉天) 등 군 간부들이 동행
- 통신은 쉬 부주석이 이날 “앞으로도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해방군은 조선인민군과 함께 두 나라, 두 군대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北주재 류홍차이 中대사, 영결식 참석(12/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북한) 대사가 영결식과 중앙추도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변인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처럼 중국이 텐안먼 광장 등에 조기를 거는 등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각종 형식으로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며 “장례 기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조기를 걸어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고 답함.
- 홍 대변인은 장덕장(張德江) 부총리가 조문단을 이끌고 방북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런 계획을 모른다”며 거듭 부인

● **中외교부 “北 김정은 영도” 언급(12/2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반드시 이 비통함을 힘으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
- 앞서 지난 20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을 방문, 조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언급

● **후진타오,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축전(1/1,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31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후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명의로 김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당신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되신 것과 관련해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후 주석은 또 “중조(북중) 두 나라 인민과 군대는 두터운 전통적 친선을 갖고 있다”며 “나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가 반드시 끊임없이 공고화되고 강화되리라 믿는다”고 강조

나. 6자회담(북핵)

● **임성남 “올바른 조건하 대화재개 필요”(12/29, 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과정이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오기만 하면 미국은 다시 대화에 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북한 측 반응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이에 앞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고위급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그러나 ‘올바른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며, 이날 면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음.
 - 임 본부장은 “오늘 면담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였다”고 소개
 -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임 본부장과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미국 측에서 데이비스 대표와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개성서 조문단 영접(12/26, 연합뉴스)
 - 북한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 조문단 일행을 영접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 최 대변인은 민간 조문단의 방북과 관련, “정부는 남북관계와 국민 정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허용했다”면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함.
-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 방북 조문(12/26, 연합뉴스)
 -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6일 통일교에 따르면, 문 회장은 지난 24일 방북해 세계평화연합 대표단과 함께 평양 김일성 광장에 마련된 조문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에 헌화
 - 통일교 관계자는 “미국에 머물던 문 회장은 외부에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방북했으며 28일로 예정된 영결식까지 참석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北 “南조문태도가 남북관계 척도” 거듭 강조(12/2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도덕적 한계와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대국상에 대한 태도가 자기들의 인륜적 한계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척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또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각계층의 조의 방문길을 그 무슨 원칙훼손이니, 남남갈등 유발이니 하면서 가로막아보려고 하고 있다”며 “17년전 민족이 당한 대국상을 두고 난동을 부린 남조선 역적집단의 반민족적 죄악을 답습하려는 현 보수패당의 반인륜적 행위는 우리 군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에 대해 초보적인 예의와 인륜도덕도 지킬 줄 모르는 자들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희호·현정은, 김정은에 조의표명(12/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문 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26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밤 “일행들은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묵상했으며 그이의 영구를 돌아보았다. 김정은 동지께 그들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면서 “그이께서(김정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함.
 - 또 “조의록에 글을 남겼다”면서 “이 여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영면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하루속히 민족통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썼고, 현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방위원장을 길이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고 보도

- **北 “南당국 인륜에 칼질...비싼 대가 받아낼 것”(12/27, 우리민족끼리)**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남조선 당국은 서울대학교에 분향소가 설치됐을 때 인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10분 만에 강압적으로 철거했다”며 “이는 동족의 피 흐르는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야만행위”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조의를 표시하고 있는데 유독 남조선 당국만이 공식 ‘애도’와 ‘조의 표시’를 거부하고 ‘주민 위로’니 뭐니 불순하게 놀아댄다”며 우리 정부의 조의 표시 수준과 조문단 방북 제한 허용을 비난



- **국정원 “北 김정일노선 답습 유흔통치 예고”(12/27,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동향에 대해 “김정일 노선을 답습하는 유흔통치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정원은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김정은을 ‘최고사령관 장군’으로 부르며 선군혁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전함.
 - 이는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최고사령관직을 조기에 승계하고, 앞으로 김정일의 유흔에 따라 ‘주체 선군혁명의 길’로 나아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
 - 국정원은 나아가 “김일성 주석 사망 때는 ‘수반’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1년6개월, 6개월 뒤에 쓴 반면 이번에는 각각 나흘과 사망 직후에 사용하는 등 초고속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고 밝힘.
 - 국정원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지난 20·23·24·26일 총 네차례에 걸쳐 빈소를 찾았고 이중 당 중앙군사위원·국방위원·군지휘관들과 함께한 24일 방문이 그를 당·군의 최고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

- **이희호·현정은 귀환..“순수 조문 이었다”(12/27, 연합뉴스)**
 - 이희호 여사 측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별도 면담은 없었으며 “순수 조문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러나 이 여사와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이 여사 측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설명하며 김 부위원장이 “멀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함.
 - 조문단은 이날 오전 김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만수대의사당에서 면담을 가졌으며 김 상임위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며 “두 분(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세 분의 일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윤 사무총장은 전함.
 - 이에 대해 이 여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계속 잘 이행되길 바라며 저희 방문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함.
 - 조문단 일행은 방북 기간 북측 인사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순수 조문이었다”고 강조



- **北 “코리아연대 황혜로 대표 평양 조문”(12/28, 조선중앙통신)**
 -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2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전에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27일 남조선(남한)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가 조의를 표시하였다”며 “공동대표는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였으며 그이의 영구를 돌아보았다”고 밝힘.
 - 황 대표는 조의록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읍니다”고 썼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개성공단 28~29일 휴업.. 입출입은 정상(12/28,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과 대규모 추도대회가 열리는 28~29일 개성공단도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의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는 오늘과 추도대회가 열리는 내일 임시 휴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개성공단은 북측의 공휴일(헌법절) 27일에도 대부분 입주기업들이 휴업했으며, 생산 물량이 밀린 일부 기업만 부분적인 조업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28~29일 임시휴업에도 입주기업 남측 관계자들의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한 개성공단 입·출입은 정상대로 진행된다고 뉴스는 전함.

- **류우익 “北 초기 상황 원만 관리”(12/29,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이 최초의 중요한 시기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관리에 어느 정도 전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통일부 출입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황이 장례식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빨리 안정을 회복하는 게 주민들의 민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 그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지키면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가져온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우리가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류 장관은 금강산관광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 답변은 피한 채 “전체적으로



로 취임 후 정책을 유연하게 해서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열어 나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런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진전된 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하겠다”고 말함.

- **北 “李대통령과 상종안해”…원색적 실명비난(12/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이미 선포한대로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국방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조문에 관한 태도를 비난하며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공동위임에 따라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힘.
 - 성명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리명박 역적패당의 악행은 남북동포들의 조의표시와 조문단 북행길을 한사코 막아나선 데서 극치를 이루었다”며 “바로 이러한 악행의 앞장에 만고역적 리명박 역도가 서 있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친 어조로 비난
 - 성명은 이어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은 리명박 역적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고 강조
- **정부 北비난에 “실망스럽다..건설적 태도 취해야”(12/30, 연합뉴스)**
 - 정부는 30일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이번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내용과 표현에서 실망스럽게 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그러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서도 건설적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 **北대남기구도 대통령 실명비난…“관계끝장”(12/3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제한 조치 등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성명에서 “이명박 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반공화국 대결 흥심을 더욱 드러내며 우리 존엄을 심히 모독하고 남조선 각 계층의 조문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만고대죄를 저질렀다”고 비난
 - 성명은 이어 김 위원장 사망발표 후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조문단에 대한 인원제한 등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도발이다. 괴뢰패당은 북남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길을 선택했다”며 “더 지켜볼 것도 없게



됐다”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이 대통령을 ‘친미 파쇼광’이라고 거칠게 비난한 뒤 “북남 관계에서 아무 것도 바랄 수 없고 재난과 화(禍)밖에 가져올 게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이것이 우리군대와 인민의 최종결론이다”며 “이명박패당이 만고대죄를 사죄하지 않는 한 부득불 최후 결판을 내는 길밖에 없다”고 위협

■ 기타 (대남)

- 南 ‘한국여성단체연합·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2.22 ‘北 조선민주여성동맹’ 앞으로 弔電/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농민·청년·여성·학술본부, 12.21·23 북측위 각 분과위원회 앞으로 弔電 발송(12/26, 중통)
- 南 경찰당국의 서울대 構內 ‘김정일 분향소’ 철거 관련, “반인륜적 행위”로 “그 비싼 대가를 받아내고 말 것”이라고 비난(12/27, 우리민족끼리)
- 南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12.20 北 ‘민화협’에 김정일 사망 弔電(12/27, 중방)
- 北, 12.28‘민화협’ 부장과 기자의 대담을 통해 ‘서울대 분향소 강제 철거’와 ‘보안법피해자모임’ 등의 분향소 설치시도 沮止 관련 “패륜 패덕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은 반민족적 행위의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2/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北으로부터의 신호' 기다린다(12/29)

- 미국은 김정일 영결식이 끝남에 따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
-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일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김정은 체제의 색깔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단 미국의 입장은 '앞으로 나올 김정은 체제의 움직임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김정일 영결식이 끝나고 공식 애도기간도 29일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김정은 중심의 새 체제가 어떻게 북한을 운영할지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것임.
- 김정일 사망 직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영양지원과 3차 북미대화 개최 문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미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임.
- 미국은 북한이 애도기간을 끝낸 뒤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긴 호흡으로 북한의 신호를 기다릴 것으로 보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에서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이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3차 북미대화과 영양지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을 이날 방문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오기만 하면 미국은 다시 대화에 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이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금방이라도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김정일 사망 전 북한은 우리농축중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나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이를 암시하는 전향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입장만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취하면 기본적인 미북대화의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은 김정일 영결식을 끝낸 북한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 특히 대외 정책을 취할지 내부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 성 김 주한미대사가 김정일 사망 이후 워싱턴을 찾은 것도 이와 완전히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북한에서 나올 한 마디 한 마디는 특히 중요하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6자회담 사전조치 이행 문제와 관련해 김정일이 떠난 북한에서 앞으로 나올 입장은 향후 미북관계를 좌우할 방향타라는 분석임.

● **임성남 “올바른 조건하 대화재개 필요”(12/28)**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과정이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 임 본부장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오기만 하면 미국은 다시 대화에 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북한 측 반응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이에 앞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고위급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그러나 ‘올바른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며, 이날 면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 임 본부장은 “오늘 면담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였다”고 소개했다.
-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임 본부장과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미국 측에서 데이비스 대표와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석했다.

나. 미·북 관계

● **“체제전복적 대북 개입정책도 가능”(12/31)**

- 미국이 김정일 사망 이후 펼칠 수 있는 대북정책에는 대화 증가, 압력 증가,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현지시간) CRS가 김정일 사망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화와 개입정책은 북한 내 온건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라면서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미국이 압박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이면서도 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진복적인 개입(Subversive engagement)’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 경제적 합작 사업이나 라디오 방송, 북한 시장에 한국산 디지털 매체의 대거 유입 등으로 북한 내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외부 세상과 접촉을 늘리도록 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임.
-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한편 이번 보고서는 김정은을 공식 호칭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이라고 직접 언급했으며,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새 지도부가 원만한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이 밖에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수 있는 요소로 지난 2년간 이뤄진 잠재적 정적 제거와 충성과 중용, 중국의 지지확보 등을 꼽은 반면 너무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 국가배급 체계 붕괴에 따른 시장 확산, 휴대전화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 증대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 美 “공은 북한에 가 있다”(12/29)

-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이나 향후 미북대화 개최 문제에 대해 북한이 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애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대북지원과 3차 북미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 무언인지를 우리는 북한에 명확히 해 왔다"면서 "공은 그들 쪽에 가 있다"고 말했다.
- 이는 김정일 사망으로 중단된 대북 영양지원 및 북미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눌런드 대변인은 또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날 워싱턴에서 가진 면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향후 조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그는 또 이 면담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여했다고 전해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문제도 양국간에 논의됐음을 내비쳤다.
 - 그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영양지원 문제가 완전히 결론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 외교부 “北美, 새로운 협의 이어갈 것”(12/29)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9일 3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북한측이 다시 준비가 되면 협의가 중단됐던 지점에서 새로운 협의가 이



- 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북미 3차 대화) 문제에 대한 북미간 협의가 지지난주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있었고 추가 논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협의가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재개 시점과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올지는 북한으로부터 입장이 나오는 것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정부의 20일 담화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담겼다”면서 “북측이 우리의 이런 기대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북미는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협의했으며 22일 북핵 문제를 의제로 한 3차 고위급 대화를 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 사망으로 무산됐다.
- 한편 조 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망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말에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진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 이어 “안보 외교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그런 내용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김, 김정일사망 직후 비공개 미국행(12/29)

-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 지난달 부임한 성김 대사의 이번 방미 일정은 한·미 양국에서 모두 공개하지 않아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성김 대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로비에서 연합뉴스 기자에게 목격됐으며, “어떤 일로 오셨느냐”는 질문에 “사람들 좀 만나러 왔다”며 황급히 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 특히 성김 대사가 국무부를 찾은 것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면담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이어서 이 자리에 동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김 대사는)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김 대사가 연말 휴가차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극비 방미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김 대사가 부임 1개월여만에 비공개리에 방미, 국무부를 찾은데다 김 위원장 사후에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들어



- 모종의 ‘임무’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았음.
- 김 위원장에 대한 추도기간이 마무리된 후 대북 식량지원 및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대사를 급히 불렀다는 것임.
- 이와 함께 성김 대사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사망 보도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직접 만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정세 관리 방안을 미 국무부 당국자들과 조율하기 위한 차원의 방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음.
- 성김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당 원혜영, 이용선 공동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김 위원장 사망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다. 중·북 관계

● <공연까지 재개한 중국 내 북한 식당>(1/1)

- 북한 식당들이 공연까지 재개하는 등 중국 내 북한인 사회가 ‘탈상(脫喪)’ 후 빠른 속도로 일상에 복귀하는 분위기임.
- 베이징시 왕징(望京) 구역에 있는 유명 북한 식당 평양대성산관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저녁 공연을 다시 시작했음.
- 이 식당은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직후 문을 닫았음.
-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난 12월 29일 문을 다시 열었지만 이날에는 종업원들이 공연을 하지 않았었음.
- 지난 12월 30일 기자가 찾아간 평양대성산관은 출입구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얀 국화꽃 다발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제외하면 김 위원장 생전 시절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음.
- 여종업원들의 얼굴에서도 극단적인 비통에 잠겨 있는 표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음.
- 일부 종업원들이 으레 있는 짓궂은 남자 손님들의 농도 웃음으로 받아치는 모습도 보였음.
- 다만 공연이 재개됐지만 아리랑 같은 무난한 곡조의 노래나 악기 연주가 주를 이뤘고 ‘휘파람’이나 ‘준마처녀’ 같은 신명 나는 노래는 듣기 어려웠음.
- 너무 경박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레퍼토리 선정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듯했음.
- 장사를 하지 않는 동안 평양에서 각종 물자 공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메뉴판에 있는 대동강 맥주는 동나 떨어졌다고 했음.
- 북한 식당들이 최근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인지 평소 한국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평양대성산관의 홀에는 손님이 반도 차지 않았음.



- 한 손님은 “북한이 이렇게 빨리 공연까지 다시 시작한 것을 보니 북한인들이 철저히 실리 위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베이징 내 북한 식당 가운데 가장 영업을 잘되는 곳으로 알려진 평양대성산관은 작년 9월 국정감사 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찾아와 식사한 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음.
 - 주중 한국 대사관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평양대성산관을 포함한 북한 식당 출입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중국에 있는 다른 북한 식당들도 평양대성산관과 마찬가지로 공연을 재개하는 등 운영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음.
 -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국상 분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최대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는 북한 관계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임.
 - 실제로 가무극 ‘양산박과 축영대(양축·梁祝)’ 공연차 중국을 순회 중인 북한 피바다가극단도 김 위원장 사망 소식 발표 직후 충칭시 공연을 중단했다가 애도 기간인 12월 24일 간쑤성 란저우(蘭州) 공연을 재개했음.
 - 이에 대해 피바다가극단 측은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순회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전체 단원들이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매 회 공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주변도 활기를 되찾아가는 분위기임.
 - 영결식과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던 외교관과 주재원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있던 대사관 주변의 북한인 상대 상점들도 영업을 정상화하고 있음.
- “中 특수부대, 김정일 사망일 비상대기”(1/1)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공안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난달 17일 밤 특수부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지난달 18일에는 랴오닝성 공안청장이 북한 신의주에 건너가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며 “중국이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탈북자 증가 등을 경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후진타오, 김정은에 연하장 보내(12/3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음.
 - 통신은 “후 주석이 김정은 동지께 2012년 새해를 즈음해 연하장을 보냈



다”며 “주조(駐朝, 북한) 중국 특명전권대사인 류홍차이(劉洪才)가 3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비서인 김영일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 후 주석은 지난 20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은 동지 영도아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한 바 있음.
- 한편, 중국 베이징 신우창성무역발전유한공사의 류강 회장은 지난 27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통해 김 부위원장에 선물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北中 접경서 ‘김정일 기념품’ 판매 불티(12/30)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북한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배지 등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음.
- 30일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장사를 나온 압록강변 노점상들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 그의 얼굴이 새겨진 옷깃 배지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입을 모았음.
- 노점상 당 씨는 평소 하루 평균 2~3개 팔렸던 배지가 김 위원장 추도 기간 13일 동안 하루 50~60개씩 팔렸다고 말했음.
- 이 배지는 구매자의 물건값 깎는 능력에 따라 하나에 10~35위안(약 1천 800~6천400원)씩 판매됨.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모습이 함께 담긴 배지는 50위안에 팔리고 있었음. - 또 이들 부자의 초상화가 그려진 가짜 북한 지폐는 20위안에, 상인들이 진짜 지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135위안에 냉장고 자석, 팔찌, 손톱깎이 등 잡다한 물건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념품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임.
- 노점상 왕 씨는 “언제 김정은 기념품을 받을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음. - 한 나이 든 노점상은 “북한은 20년 후에나 김정은 배지를 만들 것 같다”며 “그는 너무 어리다”고 일축했음.
- 왕 씨는 “주로 북한, 남한, 일본, 유럽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김 위원장 배지를 산다”고 전했다.

● 中 고려여행사 “북한 관광 내달 10일 재개”(12/30)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가 내달 10일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고려여행사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내달 10일부터 관광객들에게 자국 관광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알려줌에 따라 계획대로 관광한다고 밝혔음.
- 이 회사는 영국인 닉 보너가 지난 1993년 베이징에 설립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지난해의 경우 연간 고객 규모가 1천300명에 달해 북한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음.
- 고려여행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지난 15일부터 북한 관광을 일시 중단했으며, 회사 측은 이 조치가 매년 이 무렵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에서는 지난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추모를 위해 상점과 식당을 비롯한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고, 외국인 투자호텔의 카지노 영업과 외국인 상대 관광 예약 접수도 잠정 중단됐음.
- 북한은 서방 관광객에게 지난 1987년 문호를 개방했으며 평양, 비무장 지대, 묘향산 등지를 둘러보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 체조 공연인 '아리랑'을 관람하는 것이 주요 관광코스임.

● 中매체, 김정일 사망 올해 10대 뉴스 선정(12/30)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올해 10대 국제뉴스로 선정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환구시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병으로 돌연 사망했다'고 밝힌 19일 북한의 발표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음.
- 이 매체는 김 위원장 사망에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애도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결식이 열린 28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가 유엔기를 조기로 달았고 29일 평양에서 추도대회가 개최됐다고 소개했음.
- 환구시보는 아울러 김 위원장은 17년간 집권했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적인 회담을 했으며 핵실험을 실시해 북한을 핵보유국 대열에 올려놨다고 덧붙였다.
- 또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도자로 추대했다고도 썼음.
- 이 매체는 이밖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급변사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미국의 빈 라덴 사살, 중국의 항모 건조, 미국 월가 시위사태, 유럽 채무위기, 푸틴 재출마 러시아 대선, 스티브 잡스 사망, 남중국해 갈등 사건 등을 10대 뉴스로 꼽았음.

● 中단동 北식당들 영업 재개...북중교역 정상화(12/30)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30일 북한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丹東)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 류경식당을 비롯한 단동의 북한 식당들은 이날 점심부터 정상 영업에 나섰다.
-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지난 19일 문을 닫은 지 11일 만임.
- 류경식당은 종전처럼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여성 종업원 2명을 문앞에 배치, 손님을 맞았음.
- 그러나 종업원들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손님들과의 대화도 될 수 있으



- 면 피하는 등 조심스럽게 행동했음.
- 매일 저녁 2차레에 걸쳐 북한 노래와 전통춤 등을 선보였던 공연 역시 재개되지 않았음.
 - 한 종업원은 “언제부터 공연을 다시 시작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영업 재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날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손님은 거의 없었음.
 -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 탓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재료가 조달되지 않아 일부 음식은 주문을 받지 못하기도 했음.
 - 삼천리와 고려식당 등 다른 식당들도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으나 북한영 사사무소 맞은 편의 평양고려식당 등은 이날 점심에도 문을 열지 않았음. 이들 식당도 31일에는 정상 영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음.
 - 이날부터 북·중 교역이 완전 정상화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단둥 해관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음. 해관 앞 도로는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려는 트럭들이 꼬리를 물면서 큰 혼잡을 빚었음.
 - 압록강철교 역시 신의주로 가는 화물트럭들이 폭주, 오전 내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음.
- **中 훈춘 해관업무 재개…삼엄한 경비는 지속(12/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끝난 후 두만강 접경지역의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다시 정상화하고 있음.
 - 중국 연변(延邊)지역의 한 무역상은 29일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의 취안허(圈河) 해관(세관)이 사흘 만에 업무를 재개, 북·중 양쪽의 물자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의 무역통로인 취안허 해관은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않았고, 영결식에 즈음해 27~28일 다시 업무를 중단했음.
 - 북한은 최근 취안허 해관 맞은편의 원정리에서 라선특구로 향하는 53km 도로를 개통, 북·중 교역을 크게 활성화하고 있음.
 - 라선특구는 상·하수도과 전기, 숙박 등 기초시설이 크게 부족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임가공 수주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크게 살아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훈춘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서 라선특구의 경기가 평양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로 라선특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 하지만 두만강 지역 북중 변경지역의 경계는 여전히 삼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50m 안팎의 거리에 있는 투먼(圖門)시는 이날도 외부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변경지역에는 군인들이 철통경비를 서고 있음.



- 훈춘시도 변경지역인 취안허 해관과 팡촨(坊川)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중국 측의 변경지역 출입 통제는 군부의 조치로 알려졌고, 북한의 사정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투먼시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취재활동과 변경지역 관광을 금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 “中, 김정은 조기 訪中 초청 전망”(12/29)
- 중국이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조기 방중을 추진할 전망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중국이 향후 김정은 체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태세이며 김정은의 조기 방중을 실현해 후견국으로서의 존재를 부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의 중앙추도대회가 종료된 후 공산당 조문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임.
 - 공산당 조문단의 대표로는 당 조직부장으로 차세대 지도자의 한 명인 리위안차오(李源翱) 정치국원이 거명되고 있음.
 - 조문단은 평양에서 김정은과 회담하고, 식량 지원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식량지원은 본격적인 권력 승계에 들어간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편 김정은에게 안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중국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식량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은의 조기 방중이 실현돼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하면 경험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김정은에게 중국이 ‘보증서’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中외교부 “北 김정은 영도” 언급(12/29)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홍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반드시 이 비통함을 힘으로 승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음.
 - 홍 대변인의 ‘김정은 영도’ 표현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앙추도대회에 중국이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 앞서 지난 20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을 방문, 조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언급했음.



- 홍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북한은 좋은 이웃국가”라며 “김 위원장 사망 후 중국 측은 각종 형식으로 애도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국”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 공산당과 노동당, 양국 국민 간 우의를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中 북한인들, 곳곳서 추도 행사(12/28)

-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열린 28일 베이징과 단둥, 옌지 등 북한인들이 많은 중국 곳곳에서 추도식이 열렸음.
- 베이징 왕징(王府)의 북한식당 옥류관에는 이날 아침부터 상복을 입은 북한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오전 9시(중국시간)부터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김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기록 영상을 방영하며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주변 목격자들이 전했다.
- 옥류관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참석자들은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영결식 장면을 보며 행사를 진행했음.
- 왕징은 한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북한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곳임.
- 베이징 내의 북한 식당들은 이날 주간에는 영업하지 않았으나 저녁시간 대부터는 문을 열고 영업을 하기로 했으며 일부 식당은 저녁 식사 예약도 받았음.
-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려항공사도 오전에 문을 열지 않았음. 고려항공사는 닫힌 현관 유리창에 한글과 영어로 “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무실 일을 본다”는 안내문을 붙였음.
- 오전에는 추모활동을 위해 문을 닫고 추도식이 끝나는 3시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임.
-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은 매우 한산한 상태였음. 대사관 주변은 여전히 교통을 통제하고 중국 공간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으나 대사관을 드나드는 사람은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적었음.
- 이는 27일 베이징발 고려항공 편에 탑승한 수십명을 마지막으로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현지 북한인들이 영결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북한인들도 베이징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하거나 TV를 통해 영결식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대사관 주변의 상점들은 문은 열어뒀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음. 잡화상을 경영하는 한 중국인 여성은 ‘손님이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는가”라고 답했음.
- 하지만 대사관 주변의 꽃집은 조문 특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음. 대사관에 차려진 조문소에서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조화를 구입하면서 꽃값도 오르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임.
-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도 북한영사사무소와 북한식당 등에 모여 김 위원장을 추도했음.



- 북한에서 파견된 관료들과 무역상들은 이날 영결식이 거행되기 훨씬 전인 오전 7시께부터 속속 조화를 들고 조문소가 설치된 단둥 북한영사사무소를 찾았음.
- 이들은 침통한 표정 속에 말을 아낀 채 김 위원장 영정 앞에 헌화하고 위성을 통해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과거 시찰 영상과 조문 장면 등을 시청했음.
- 북한 영사사무소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평양고려식당과 압록강변의 삼천리식당, 단둥 시내의 고려식당 등에도 북한 종업원들이 수십 명씩 모여 북한 TV를 시청했음.
- 지린(吉林)성 연지(延吉)에서는 북한 류경호텔의 1층 류경식당에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조문객들을 받으며 김 위원장을 추도했음.
- 류경호텔의 조문객들은 검은 의상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시종 침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음.
- 한 관계자는 “호텔과 식당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며 앞으로 며칠간 조문에 대한 보답으로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정상 영업 시기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 류경호텔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후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갔음.

● 中, 올해 대북 교역액 사상 최대(12/28)

- 올해 중국의 대북(對北) 교역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29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북한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5% 늘어난 46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음.
- 2개월(11~12월)간의 수출입액이 빠진 상황에서도 올해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연간 실적(34억7천만 달러)을 훌쩍 넘었음.
-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연말까지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중국의 대북 수입 증가율(124.8%)이 수출 증가율(47.2%)을 크게 웃돌아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줄어든 5억7천만 달러로 조사됐음.
- 코트라는 “양측 교역에서 중국이 흑자인 구조적 특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흑자금액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북한 주요 수출품은 원유, 디젤유,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질소비료 등이었으며 수입품은 무연탄, 철강, 비합금선철, 인조섬유제 등이 주를 이뤘음.
-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1999년(3억7천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10억2천만달러로 10억 달러대에 처음 진입했음.
- 이후 2007년까지 10억 달러대였고 2008~2009년 20억 달러대, 2010년 30억 달러대를 각각 기록했음.
-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26억7천만 달러)에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을 빼면 교역액은 해마다 증가했음.



- 북한의 대외무역 중국 의존도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1999년 25%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83%에 달했음.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中 군·외교 간부들 北대사관 조문(12/28)

-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군 고위간부들이 지난 27일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음.
- 조의 방문에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총정치부 주임인 리지나이(李繼耐), 부총참모장 마샤오텐(馬曉天) 등 군 간부들이 동행했음.
- 통신은 쉬 부주석이 이날 “앞으로도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해방군은 조선인민군과 함께 두 나라, 두 군대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통신은 또 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치(劉琪) 등 외교부와 베이징시당 간부들도 이날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지난 20~21일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9명의 상무위원이 베이징에 마련된 김 위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음.

● “中, 北영결식에 부총리 파견” <日언론>(12/27)

- 중국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중국과 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에 장더장 부총리의 파견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외국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음.
- 신문은 중국이 장 부총리의 파견으로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장 부총리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한 북한통으로 지난 7월 북중 우호협력상호지원협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했었음.
- 장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선(북한) 쪽에서 다른 나라의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라. 러·북 관계

● 러시아, 보로다브킨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12/29)

- 러시아 정부가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를 교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 러시아는 보로다브킨 차관을 주(駐) 제네바 대사로 발령내고 후임에 마르굴로프 현 아주국장을 임명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 러시아의 이 같은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확대하고 6자회담 재개 국면에 대비해 새롭게 한반도 라인을 조정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마르굴로프 신임 대표는 2009년부터 아주국장을 맡아 북핵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보로다브킨 차관이 2008년 3월부터 3년 넘게 6자회담 수석대표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몇개월 전부터 교체설이 제기돼왔다”면서 “한반도 논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상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하고 6자회담 관련국 수석대표가 올해 안에 모두 바뀌게 됐다.
- 아울러 한국은 위성락에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한은 김계관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으로,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에서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로, 일본은 사이키 이키타카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 각각 교체했다.

● 러·중 언론 “김정일 영결식 시작”(12/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시작됐다고 러시아와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 북한에 특파원을 둔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의 영결식이 시작됐다고 긴급 타전했다.
- 이타르타스는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영결식이 시작됐다고 전했으며, 신화통신은 북한이 김 위원장에게 작별을 고했다고 짧게 전했다.
- 북한 당국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영결식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이날 영결식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시작돼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평양시내를 돌면서 평양주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향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현지도 모습 등을 담은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역사’ 등 사전에 준비된 방송을 내보내며 특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영결식 장면은 방영하지 않았다.
-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영결식도 행사 후에 녹화 중계한 바 있음.



● 러시아, 한국 등에 ‘대북 도발 자제’ 주장(12/26)

- 북한과 이웃한 국가들은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대북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26일 말했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코프 차관은 이날 현지 뉴스전문 TV 방송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권력) 이행기가 복잡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이 도발로 간주할 수 있는 도발행위를 북한 이웃국가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북한 주변국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 대북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됨.
- 라브코프는 “지금은 국제사회 구성원 및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마. 기타

● 이희호·현정은, 김정은에 조의표명(12/26)

- 조문 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26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 여사와 현 회장이 오늘 오후 6시20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조문하고, 이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이 남측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소식은 이날 밤 현 회장 측 수행자가 현대아산을 통해 전해왔음.
- 이 여사·현 회장과 김 부위원장의 대면은 상주에게 조문하는 형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통일부 당국자는 “조문단 일행은 6시30분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조문이 이뤄진 금수산기념궁전과 백화원초대소의 거리가 5분여 정도 임을 감안하더라도 길어야 수분 정도의 대면으로 의례적 수준의 인사만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임.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밤 “일행들은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묵상했으며 그의 영구를 돌아보았음. 김정은 동지께 그들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면서 “그이께서(김정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 또 “조의록에 글을 남겼다”면서 “이 여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영면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하루속히 민족통일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썼고, 현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 해주신 국방위원장을 길이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고 보도했음.



- 조문단 일행은 정오께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해 오후 1시부터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오찬을 북측의 누가 주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오찬이나 만찬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조문 특사단으로 남측에 왔던 김기남 당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음.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을 수도 있음.
- 김 부위원장이 만찬에 참석했거나 이 여사 일행의 조문 이후 별도의 '깜짝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음.
- 북측은 민간조문단을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음.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 12명이 개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조문단 일행을 맞이했음. 숙소 또한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귀빈들이 묵는 백화원초대소로 정했음.
- 민간 조문단 일행은 27일 오전 8시 조찬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져 이날 만남 외에 북측 고위급 인사와의 별도 접견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여사 측은 현 회장 측과는 별도로 귀환 중간에 개성공단에 들러 입주 기업 2~3곳을 둘러보고 오후 3시께 MDL을 통과해 돌아옴. 현 회장 측은 이보다 앞서 낮 12시20분께 MDL을 넘어 귀환할 예정이음. 조찬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만큼 MDL 도착 시각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음.
- 이 여사 측에서는 이 여사와 아들 홍업·홍걸씨, 큰며느리, 장손 등 김 전 대통령 유족 5명, 이 여사 수행원·주치의·경호관 8명 등 총 13명이 방북했음. 현 회장 측은 장경작 현대아산 대표,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협본부장(상무) 등 현대아산·현대그룹 임직원 4명이 현 회장을 수행했음.

● 北 방북조문단 극진예우..숙소 백화원초대소(12/26)

- 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26일 방북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음.
-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이 직접 이 여사 일행을 영접한 데 이어, 숙소 또한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귀빈들이 묵는 백화원초대소인 것으로 확인됐음.
-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통일부로부터 이 여사님과 현 회장이 백화원초대소에 묵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음.
- 평양 대성구역 임흥동에 위치한 최고급 영빈관인 백화원초대소는 2000년과 2007년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숙소였으며 2002년 9월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장소이기도 함.
- 최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 "북측이 이 여사 일행을 백화원초대소에 모신



- 것은 최고의 예우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현정은 회장이 2007년 11월 백두산 및 개성관광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을 때 백화원초대소를 숙소로 썼음.
- 당시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우 수준으로 미뤄볼 때 현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현 회장은 며칠 뒤 묘향산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했음.
- 앞서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 12명이 이날 개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이 여사 일행을 맞았다고 전했다.

● 이희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기대”(12/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방북 길에 오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26일 "저희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여사 측의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날 평양 방문에 앞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조문 방북과 관련한 이 여사의 언급을 이같이 전했다.
- 윤 사무총장은 또 "이 여사가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김 위원장이 조문 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주신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윤 사무총장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만날 예정인지, 정부 측의 대북 메시지를 갖고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순수한 조문"이라고 답했음.
- 이 여사 측 13명,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5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조문단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으며,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예정임.
- 남측 차량으로 북측 CIQ인 통행검사소까지 이동한 뒤 평양까지는 북측 차량을 이용하게 됨.
- 조문단 일행은 평양에 도착해 북측 인사와 오찬을 할 예정이지만, 누구와 어디서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음.
- 민간 조문단은 이어 오후에 조문을 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8시께 평양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귀환할 예정임.
- 이 여사 측에서는 이 여사와 아들 흥업·흥결씨, 큰며느리, 장손 등 김전 대통령 유족 5명, 이 여사 수행원·주치의·경호관 8명으로 이뤄졌고, 현 회장 측은 장경작 현대아산 대표,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상무) 등 현대아산·현대그룹 임직원 4명이 현 회장을 수행했음.



● 이희호·현정은 방북..오늘 조문(12/26)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89)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56)이 26 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함.
- 이 여사와 현 회장 일행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오전 8시20분께 군사분계선(MDL)를 넘은 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음. 남측 차량으로 북측 CIQ인 통행검사소까지 이동한 뒤 평양까지는 북측 차량을 이용하게 됨.
- 조문단 일행은 평양에 도착해 북측 인사와 오찬을 할 예정이지만, 누구와 어디서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음.

● 北, 1970년대초부터 '김일성 유고' 대비(12/26)

-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 주석의 유고(有故)에 대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세습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음.
-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WWC)가 공개한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12일 평양 주재 동독 대사는 본국 외교부에 보낸 전문에서 김 위원장의 후계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했음.
- 전문은 당시 남한으로 탈북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라디오서울 방송을 통해 김 주석의 가족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한 뒤 "이는 우리가 북한 측의 이너서클(핵심층)을 통해 파악한 내용과 대체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당 회의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다"며 "이는 중대 사태(something grave)'가 김일성에게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김정일의 대형 사진이 통일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그의 발언과 함께 사무실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김일성의 첫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김정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전문은 "이는 아주 은밀하고 민감한 이슈로, 북측 동무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랜기간 민감하게 관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음.
-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1974년 2월 노동당 정치위원에 오르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북한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이후 1980년 10월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음.
- 동독 대사는 이듬해 4월 14일 또다시 본국에 외교전문을 보내 이른바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전하며 "처음으로 김일성 가족의 연대기에서 첫 부인과 장남이 강하게 부각됐다"고 보고했음.



- 또 기존의 김일성 사진과 같이 김정일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림이 등장했다면서 "이는 김일성의 장남이 체계적으로 후계자로 길러지고 있다는 우리의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어 1975년 12월 12일 전문은 "북한이 최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당중앙(김일성의 아들)이 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했음.
 - 그러나 동독 대사는 1977년 7월 4일 전문에서는 "당중앙'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는 더이상 김정일의 구호를 찾아볼 수 없고, 초상화의 수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 냉전시대 북한 비밀문건을 발굴해 영어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북한 국제문서 연구사업(NKIDP)'을 진행하고 있는 WWC는 최근 김 위원장 사망 보도 후 4건의 외교전문을 공개하면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은 20년 넘게 진행됐다"면서 "이는 2~3년에 불과한 김정은과 비교된다"고 지적했음.
- **北 “남조문태도가 남북관계 척도” 거듭 강조(12/26)**
- 북한은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문 태도가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검토하는 척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도덕적 한계와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대국상에 대한 태도가 자기들의 인륜적 한계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척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각계층의 조의 방문길을 그 무슨 원칙훼손이니, 남남갈등 유발이니 하면서 가로막아보려고 하고 있다"며 "17년전 민족이 당한 대국상을 두고 난동을 부린 남조선 역적집단의 반민족적 죄악을 답습하려는 현 보수패당의 반인륜적 행위는 우리 군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에 대해 초보적인 예의와 인륜도덕도 지킬 줄 모르는 자들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25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조문에 대한 남한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탈북단체, 김정일 영결식에 또 대북전단 살포(12/26)**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영결식이 치러지는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음.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2개 탈북자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호소문 20만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릴 방침임.
- 호소문은 A4용지 2쪽 분량으로 북한의 3대 세습과 선군정치를 비판하고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풍선에 미화 1달러 지폐 1천장(1천달러)도 담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체제를 지켜본 결과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등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영결식에 맞춰 이를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희호·현정은, 北김영남 면담한듯(12/27)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차 평양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공식 직함상 북한의 최고 수반인 김 위원장이 조문단의 평양 출발 전에 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전 조찬 이후에 면담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조문단과 김영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됨에 따라 북한이 조문단을 통해 대남 메시지를 전했는지 여부가 주목됨.
- 이 자리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혼사업'인 6·15 및 10·4 공동선언이나 '민족사업'인 경협·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김 위원장과의 면담 자체가 이 여사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마련됐고 그런 점에서 원론적 수준의 인사말만 서로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조문단은 이날 오전 평양을 출발, 개성을 거쳐 오후에 귀환할 예정임.

● '조문 방북' 이희호·현정은, 오후 귀환(12/27)

- 조문 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임.
- 이 여사와 현 회장 일행은 전날 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시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조문하고 상주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했음.
- 조문 방북단 일행이 김 부위원장과 추가로 별도 면담을 했는지, 오찬이나 만찬 등에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남 당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을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측은 "조문단이 전날 밤 연락을 해온 것 외에는 27일 아침까지 별도의 소식은 없었다"고 전했다.



- 조문단 일행은 이날 오전 평양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도라산 남북출입 사무소를 통해 귀환함.
- 이 여사 측은 현 회장 측과는 별도로 귀환 중간에 개성공단에 들러 입주 기업 2~3곳을 둘러보고 오후 3시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돌아올 예정이음. 현 회장 측은 이보다 앞서 낮 12시20분께 MDL을 넘어 귀환할 계획임.
- 그러나 당초 오전 8시 평양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각 조찬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계획보다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김정은, 이희호·현정은과 무슨 대화 나눴나>(12/27)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차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을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을 지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남측 민간방북단의 조문은 지극히 의례적이었음. 통상적 조문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소요시간도 5분 이내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문과정에서 남측 조문단과 김정은 부위원장 사이에 의미있는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여사와 현 회장 일행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금수산기념궁전에 도착, 김위원장의 시신에 화환을 증정하고 일제히 목상한 뒤 김 위원장의 영구(靈柩)를 둘러봤음.
- 이어 상주인 김정은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했고 김정은도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했음. 다음으로 이 여사는 조문록에 "김 위원장께서 영면하셨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하루속히 민족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록했음. 현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방위원장님을 길이 길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는 후문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양측 사이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의미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보다는 의례적 수준의 인사말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음. 조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남북관계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옴.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김정은과 남측 조문단의 면담이 단순히 조문과정에서의 의례적 접견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음. 특히 김정은이 이 여사에 대해 백화원초대소를 숙소로 제공하고 극진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저녁 별도로 백화원초대소를 찾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음.
- 일각에서는 김정은은 상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대남 메시지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오·만찬을 통해 대신 전하는 '역할분담'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다만 어떤 형태이든 양측은 과거 김 위원장을 회고하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무겁지 않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임.
- 정부 주변에서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화제로 올랐을 개연성이 거론됨. 남편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찾았던 이 여사가 당시 만난 김 위원장의 모습을 회고하고 이에 대해 북측도 화답하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을 것이란 얘기했음.
- 이는 이 여사가 조의록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언급한데서도 읽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6·15와 10·4공동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승계구도를 만드는 핵심은 아버지에 대한 최상의 효성심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김 위원장이 한 일과 김 위원장이 만난 사람에 대해 최고로 잘하려고 할 것"이라고 추정했음.
- 현 회장에 대해서는 김정일 유훈 사업의 또 다른 축인 '민족사업'이 거론됐을 수 있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현대가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민족사업이 잘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이 과정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문제도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통일외교 강화.. 정책보좌관에 현직 외교관>(12/27)

- 통일부장관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에 현직 외교관이 내정됐음.
-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김영환(40, 행시 27회) 참사관이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음.
- 김 참사관은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주중대사 재직 시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같이 일했으며, 류 장관이 통일외교 강화 차원에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직 외교관이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임.
- 현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이었던 김하중 전 장관이 지난 2008년 취임 직후 당시 주중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여소영 현 외교부 1등 서기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한 바 있음.
- 류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인접국과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한반도 통일은 남북 간 정부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만 인접국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환경을 구성하는 변수임.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류 장관은 이런 취지에서 지난달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기회가 되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본이나 러시아도 방문할 생각"이라고도 밝힌 바 있음.
- 통일부는 또 통일외교 강화 차원에서 현재 미국 워싱턴DC,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세 곳에 나가 있는 통일 안보관을 독일과 러시아에도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모두 두 자리로 경향신문 기자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차세현(41) 보좌관이 지난 10월부터 류 장관을 보좌하고 있음.

● 이희호측 “김정은 ‘찾아줘서 감사’”(12/27)

- 이희호 여사 측은 27일 이번 방북 조문에서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멀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 방북을 하고 이날 귀환한 이 여사 측은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에게 "(조문을 위해) 약 40~50분간 기다렸다가 10분 정도 면담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고령(89)인 이 여사를 대신해 이뤄졌으며, 기자회견 동안 이 여사는 윤 사무총장과 함께 자리했음. 윤 사무총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면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면서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음. -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여사와 김 상임위원장은 이번 조의 방문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북측이 조문단을 서울에 보내준 데 대해 서로 감사를 표시했다고 했음.
- 또 그는 "이 여사는 면담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계속 잘 이행되길 바라며 저희 방문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현정은 “조문 인사만 했고 별도 면담 없어”(12/27)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별도 면담은 없었다”고 밝혔다.
- 1박2일간의 조문 방북을 마치고 귀환한 현 회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그냥 애도 표명만했지 별도의 얘기는 없었고, 따로 만난 것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현 회장은 김 부위원장의 인상과 성품에 대해 각각 "마스크에서 보던 대로였다", "조문 인사만 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고 답했음.
- 그는 이날 오전 이뤄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 대해 "일반적 얘기만 했고 순수 조문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했다"고 말했음.
- 또 대북사업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문 목적이었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음.
- 그는 "평양을 떠날 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 배웅을 했으며 초대소에서 잠깐 뵈었다"고 전했다.



● **탈북자 합심센터서 자살..“위장탈북 들통”(12/27)**

- 합동신문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드러난 30대 남성 탈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대 탈북자 1명이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내 숙소 샤워실에서 운동복 끈으로 목을 맨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고 공개했다.
- 국정원은 이 탈북자는 신원과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12일 북한 공작조로부터 탈북자 지원 국내 모 선교단체의 위치와 선교사 신원을 파악하고 보고후 잠복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로 침투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 정보 소식통은 “이 탈북자는 북한 공작조로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볼 모로 협박을 받았으며, 붙잡히면 '장렬히 자폭하라'는 지령을 받아 위장 탈북 자백 후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정원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일 관할 검찰과 경찰에 즉시 신고했으며, 경찰이 검찰의 지휘 아래 현장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 국정원은 이와 함께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외력에 의한 손상은 전혀 없고 목 부위 상흔 등으로 보아 자살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국정원은 이 탈북자가 언제 어디를 통해서 입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국과수 부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을 했고, 사망 후 며칠이 지나 시신을 경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위장 탈북했다고 자백한 탈북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음.
-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현재 시신은 보존하고 있으며, 국과수 부검은 14일 의뢰해 당일 나왔음. 사망 당일인 13일 검·경에 신고하는 한편, 현장검증까지 거쳤다”고 해명했다.
- 국정원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봤는데 새벽 시간대 1~2분 정도를 놓친 것 같다”면서 “목을 맨 것을 곧바로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발견 당시 숨은 붙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탈북자는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과 경찰, 군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신문팀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합동신문을 받던 탈북자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김정일 死後〉 北·中 변경지역 출입 봉쇄(12/27)**

- 북한과 중국의 변경지역 출입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앞두고 완전히 봉쇄됐다.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바로 접해있는 중국 훈춘(琿春)과 투먼(圖



- 們)시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장을 앞두고 매우 비통한 상태라면서 외국인이 변경지역에서 북한을 구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두만강과 투먼강 등이 교차하는 룡징(龍井)시도 변경지역의 출입로를 완전히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훈춘과 투먼시 관계자는 변경지역에서 언론사 취재는 물론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의 변경지역 출입을 금지했으며 금지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북한 내부 사정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김 전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보다 더 강화된 조치임.
 - 김 전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에는 훈춘의 취안허(圈河) 해관(세관)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선이 맞닿은 팡촨(坊川)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음.
 - 이렇게 변경지역 통제가 강화한 것은 김 전 위원장 사망 후 외국인론과 외지인들의 출입으로 북한 사정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음.
 -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줄 게 없기 때문에 변경지역을 봉쇄함으로써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임.
 -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의 무역통로인 훈춘의 취안허 해관도 28일 김 전 위원장의 영결식을 앞두고 이날부터 이틀간 업무를 중단했음.
 - 취안허 해관은 지난 19일 김 전 위원장의 사망 발표 후 이틀간 업무를 중단한 후 북·중 경제교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업무를 중단한 것임.
 -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은 외부인과 전화통화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며 외부인과 만나는 것은 아예 삼가고 있음.
 - 한 관계자는 “북한에서 큰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지역의 특성상 정부 모든 기관의 경계심이 매우 고조돼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부인과 전화통화나 만남이 곤란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北 권력 핵심들 ‘김정은 대장 동지’ 한목소리>(12/27)

- 북한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동급으로 ‘모시고’ 있는 사실이 이번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 과정에서 확인됐음.
- 방북을 마치고 귀환한 이 여사를 도리산 남북출입관리사무소에서 맞아 동교동 자택까지 동행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 여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 대장동지를 높이 받들고 김정일 장군의 위업을 이어받는 결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또 방북 조문단을 배웅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김정



은 대장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통전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원동연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 여사 일행을 맞이하면서 “김정은 대장 동지께서 6·15때 오셨던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하라고 지시해 그때 주무셨던 101호에서 주무시도록 했다”고 말했다는 것임.

김 상임위원장은 비록 명목상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인 원로 그룹의 좌장격이자 김정은에게는 집안의 할아버지뻘 되는 인사임.

- 또 김양건 통전부장도 북한의 권력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며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역시 김양건 체제의 통전부에서 최고 핵심 실세로 꼽히는 인물임. 원 부부장은 아태위 부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최근 북한 언론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조문단의 방북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음.

● <류우의 “남북관계에 도움 바래”..조문단 만찬>(12/27)

-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27일 저녁 조문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 등 조문단과 서울 시내 모 한정식 집에서 만찬을 가졌음.
- 이날 자리는 민간 조문단의 방북 얘기를 듣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측의 분위기를 탐색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만찬에는 조문을 다녀온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과 이 여사의 3남 홍길씨 외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같이했음. 특히 박 의원은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음.
- 류 장관은 “먼 길에 고생하셨다”면서 “정부에서는 가지 않았지만 두 분(이 여사·현 회장)이 조문을 해서 그것이 향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현 회장에 대해서는 “현 회장님 일도 잘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금강산관광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임.
- 류 장관은 “(이명박)대통령께서 추운데 원로(먼 길)에 갔다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고 저보고 꼭 전달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음.
- 이에 이 여사는 “평양에 가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화답했음.
- 박 의원은 이번 조문 방북단에 자신이 배제된 데 대해 점잖은 어조로 류 장관을 몰아세웠음.
- 박 의원은 이날 만찬에 “저도 왔다”고 밝힌 뒤 류 장관이 “같이 못 가서 섭섭하셨죠”라고 하자 “많이 섭섭하다”고 말했음.
- 박 의원은 “그쪽(북측)에서도 저희에 대해 묻고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좋은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음.
- 그는 또 “그래도 김양건 비서가 여사님이 좋은 때 아무 때라도 꼭 다녀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여사님을 모시고 6·15 관계자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음.



- 류 장관이 "남북관계 진전이 잘되면 뭐 혼자도 가시고 두 분도 가시면 좋죠"라고 하자 박 의원은 "진전이 되면 다닐 수 있는 거죠. 진전되게끔 하기 위해 그러는 그죠"라고 다소 가시둔친 말들을 주고 받기도 했음.
- 류 장관은 "노력하십시오"라고 답했음. 이날 만찬은 앞부분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음.

● 이희호측 “김정은 ‘최대 편의로 돌보라’ 지시”(12/27)

- 이희호 여사 측은 27일 이번 방북 조문에서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 여사 일행에 대해 "최대의 편의로 돌봐 드려라"고 지시내렸다고 전했다.
-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백화원초대소로 영접나온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이 이 여사에게 김정은 부위원장으로 부터 이같이 지시받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음.
- 박 전 원내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 방북을 하고 귀환한 이 여사를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맞아 동교동 자택까지 동행했음.
- 그는 “원 부위원장이 '김정은 대장 동지께서 6.15 때 오셨던 것과 똑같은 대우로 모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원 부위원장은 '6.15 때 백화원초대소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묵으셨던 101호에 이번에도 묵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또 이 여사가 조문 당시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조의를 표하자 김정은 부위원장이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음.
- 이 여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과 관련해서는 “김 상임위원장이 당과 국가최고 영도자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를 높이 받들고 김정일 장군의 위업을 완성하는데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김정은 부위원장을 '국가 최고지도자 김정은 대장동지'라고 호칭한 것은 결국 김정은 부위원장으로 후계체제가 완전히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언론에는 북한 측에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이 개성으로 영접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김성혜 조평통 부장이 개성에 와서 안내했고, 벤츠 승용차로 평양까지 이 여사와 동행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통일부가 지난 26일 '리종혁 부위원장이 이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 조문단 일행을 영접했다'고 브리핑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영접나온 북측 인사는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이 아니라 전중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음.



● **김정일 영결식…김정은 마지막 참배(12/2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10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마지막 참배를 시작으로 열림.
- 영결식은 영결보고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되며,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평양 시내를 돌며 주민에게 작별인사를 고했.
- 영결식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시신은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됨.
-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은 전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다섯번째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애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위원장의 영결식을 맞아 북한 언론매체도 특보체제에 들어갔음. 조선중앙TV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까지 방송을 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사실상 종일방송을 했음.
- 이 방송은 다큐멘터리 영화 '위대한 영도의 빛나는 역사' '선군시대 사회주의 선경을 펼쳐주시어' 등 김 위원장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전하며 추모분위기를 돋우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의 라디오 방송도 장엄한 곡조의 추모곡을 내보내고 있음.
- 이들 방송은 영결식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생방송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9일 오전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민 10만여명을 모아놓고 중앙추도대회를 열며, 정오에는 평양과 북한의 각 도시소재지에서 조포를 쏘고 모든 주민이 3분간 묵념을 하게 됨.

● **금융당국 “北 관련 루머 감시 강화”(12/28)**

- 금융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 관련 루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지난주부터 북한 관련 소문을 포함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루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며 “직원들이 직접 증권사 등 현장을 돌리보며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음.
- 거래소 관계자도 “시장에서 북한 소문과 관련해 이상한 매매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최근에 시장감시 인력을 보강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는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을 악용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김 위원장 사망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언제든 돌발변수



-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에 이용될 소지가 큼.
- 전날만 해도 뚜렷한 악재 없이 잠잠하던 주식, 외환, 채권시장이 갑작스런 중국군 북한 파병설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출렁였음.
- 코스피는 오전 한때 중국 파병설이 돌자 50포인트 이상 추락했다가 1분 만에 회복했음.
- 원·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1,155.00원에서 출발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북한 관련 소문이 퍼지자 1,160.00원까지 급등했음.

● <‘홀로서기’ 시험대 오른 北김정은 미래는>(12/28)

- 28일 김 위원장의 영결식을 치름으로써 아버지이자 절대권력자의 보호막을 벗는 20대의 어린 지도자가 북한을 이끌어야 할 무거운 짐을 떠안았음.
-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 데뷔한 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따라다니며 황태자 수업을 했음.
- 그러나 통치수업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난 독자적인 활동이 공개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폼속 행보’만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김정은 체제의 안착 가능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조기에 안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림.
- 북한 매체들은 김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했고, 겉으로 보기엔 당과 군부에 대한 장악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앞에 놓인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 우선 김 부위원장의 카리스마나 정책적 능력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와 주민을 상대로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함.
- 김 부위원장은 북한 권력 엘리트 사이에 인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어린 시절 북한이 아닌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에는 교수들이 집으로 방문해 강의하도록 하는 과외식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상당 부분 외부와 차단된 채 학생시절을 거쳐 또래의 친구 등과 사귀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음.
- 김 위원장이 만경대혁명학원, 평양 남산고급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친위그룹을 구축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임.
- 또 아버지가 20년 넘게 차근차근 후계자 준비를 한 데 비해 김 부위원장은 후계수업 기간이 3년도 채 안되는 점을 들어 경험 부족도 지적받음.
-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혈족인 고모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그의 남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에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큼.
- 장 부장이 지난 24일 처음으로 대장 군복 차림으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등장한 사실이 북한TV를 통해 공개된 점도 그가 김 부위원장의 권력



- 장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음.
- 김 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성택 부부의 섭정 체제가 본격화할 개연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 군부의 경우도 군부 실세인 리영호 군참모장을 중심으로 후견그룹이 있지만, 김 부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충성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
 - 북한 주민의 마음 속에 김 위원장을 대신하는 ‘영도자’로 자리매김하기는 더더욱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 북한은 후계자 내정 이후 2년 넘게 주민을 상대로 김 부위원장을 뜻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보급하고 이상화 교육을 벌였지만 김 위원장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편임.
 - 북한 주민은 ‘지도자 김정일’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게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임.
 - 북한 당국이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임.
 - 무너진 배급제와 물가 폭등 등에 따른 경제난은 주민들의 생활고 심화와 불만 고조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
 - 이런 점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런 대내외적 악조건을 고려해 당분간 자신의 색깔이 담긴 새로운 정책보다 부친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이른바 ‘유훈통치’에 힘쓸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이미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라는 기존 구호를 부쩍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고 있음.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의 유훈이 정책적 지침이 되고 당분간 권력 엘리트들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공생을 도모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현저히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여기에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 만큼 김 부위원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당장 불만을 표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김정은 체제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유훈통치가 끝난 뒤 권력 엘리트와 주민에게 새 지도자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큰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음.

● 김정일 영결식...37년 철권통치 종지부(12/28)

-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사망 11일 만인 28일 오후 2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렸음. 영결식은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음.
- 이로써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됐던 1974년부터 시작된 37년간의 ‘김정일 철권통치’가 마감됐음.
- 북한은 29일 정오에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중앙추도대회를 열어 김 위원장을 추도하고 새 지도자에 오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 에 대한 충성을 다짐할 예정임.
- 이날 김 위원장 영결식 행사는 애초 오전 10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날 밤부터 평양에 내린 눈 때문에 4시간 정도 미뤄진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TV 등 북한 방송매체는 새 지도자인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 옆에서 호위하며 등장하는 장면부터 행사를 생중계했음.
-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에 이어 최고지도자에 올랐음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린 셈임.
- 김 부위원장 뒤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가, 건너편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8명이 걸으며 영구차를 호위했음. 북한의 새 지도부는 사실상 이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의 영구차는 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동적위대 명예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금수산기념궁전을 빠져나가 거리행진에 나섰다.
-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실은 차량을 선두로 김 부위원장의 조차, 영구차, 주석단 순으로 이뤄진 운구행렬은 금성거리-룡흥 네거리-비파거리-보통문거리-천리마거리-통일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으로 향했음. 연도에 선 주민들은 영구행렬이 지날 때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운구행렬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돌아가 육·해·공군 및 노동적위대 명예의장대 사열을 재차 받았음. 의장대는 김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오른 가운데 분열행사를 가졌음.
- 영결식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돼 영구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탈북단체, 김정일 장례식날 대북전단 띄워(12/28)**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이 치러진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가졌음.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2개 탈북자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2천만 동포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호소문 20만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음.
- 호소문은 A4용지 2쪽 분량으로, 북한의 3대 세습과 선군정치를 비판하고 북한 내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이들은 호소문과 함께 미화 1달러 지폐 1천장(1천달러)도 넣었음.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보내게 됐다”며 “아랍에 붙었던 민주화 바람처럼 북한에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이들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친 후 풍선을 띄웠으며 10개 가운데 일부가 떠오르자마자 터져 대북전단이 임진각 상공에 살포됐음.



● **개성공단 28~29일 휴업..입출입은 정상(12/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과 대규모 추도대회가 열리는 28~29일 개성공단도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음.
-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의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는 오늘과 추도대회가 열리는 내일 임시 휴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28~29일 휴업에 의견을 같이했었음.
- 개성공단은 북측의 공휴일(헌법절) 27일에도 대부분 입주기업들이 휴업했으며, 생산 물량이 밀린 일부 기업만 부분적인 조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28~29일 임시휴업에도 입주기업 남측 관계자들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개성공단 입·출입은 정상대로 진행됨.
-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의 입주기업이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 4만8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음.

● **<전력난 北 특보체제...사실상 '종일방송'>(12/28)**

- 북한 방송들이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열흘째 특보체제를 가동하고 있음.
-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은 그동안 대부분의 보도를 김 위원장을 추도하고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음.
- 이 중에서도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 영결식을 앞두고 방송시간을 평소보다 대폭 늘린 게 눈에 띈.
- 조선중앙TV는 영결식이 열리는 28일에는 오전 7시부터 김 부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하고 김 위원장의 현지도 모습 등을 담은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역사를 내보냈음.
- 조선중앙TV가 보통 평일에 오후 5시부터 10시30분이나 11시 정도까지 방송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전 7시부터 방송은 매우 이례적임.
- 이에 앞서 조선중앙TV는 27일 오전 시작한 방송을 날짜를 넘겨 이날 오전 2시20분까지 계속했음.
-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이 매체가 자정을 넘겨 오전 1시까지 방송한 사례가 많지만 오전 2시까지 방송시간을 늘린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음. 사실상 종일방송을 한 셈임.
- 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한 지난 19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방송을 시작했음.
- 라디오방송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김 위원장의 사망 관련 보도를 하루에 24시간 가까이 내보내고 있음.
- 북한이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방송 특보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대내결속을 강하게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됨.



● 통일부 내년 최우선 목표 ‘한반도 안정관리’(12/28)

- 통일부는 내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설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새 지도부의 착근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어느 때보다 유동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체제 불안정으로 대규모 탈북사태가 발생하거나 급기야 체제 붕괴로 이어지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중대한 안보위기로 빠져들 수 있음.
-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담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의를 표하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을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음.
- 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적극적인 대북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 통일부는 현재 성안중인 내년 업무계획에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북 유연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안정적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 유연성 발휘를 통한 안정적 대화채널 구축은 류우의 통일부장관이 지난 9월 취임 이후부터 주력해온 핵심 과제임.
- 그러나 '김정은 체제'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수단을 동원할지 주목됨.
- 류 장관은 그동안 유연화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와 사회문화교류 확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취했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차 북미대화 개최 등의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가 내년 초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음.
- 정부가 전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원칙을 하루아침에 접지는 못 할 것으로 보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유연한 전략으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등 당장 큰 욕심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정부의 세부 전략은 내년 1월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이튿날 있을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임.
- 통일부는 또 류 장관이 분단 이재민이라고 표현해온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일준비도 내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따라서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상봉, 궁극적으로는



- 송환을 위한 대북 협상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부는 517명으로 추산되는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지난 26일 설치했음.
- 통일준비의 핵심은 통일재원 마련임.
-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 이른바 통일항아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임.

● 김정일 추도기간 종료..한반도 전방위 외교전(12/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추도기간이 29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새판짜기를 겨냥한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4강의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한·미·일·중·러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명분으로 북한과의 양자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교섭에 나서고 있고, 북한도 '유혼통치'에 따라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관장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다음주 중으로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동북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은 4~5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캠벨 차관보의 이번 순방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첫 미국 고위당국자의 동북아 방문으로, 한반도 정세운용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 특히 한반도 주변질서를 이끄는 미·중 양국은 캠벨 차관보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6자회담 재개 국면을 추동해내기 위한 전략적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향배가 주목됨.
-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계획 중이던 북미 3차대화가 김정일 사망으로 중단됨에 따라 이를 재개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미 양국은 김정일 사망 직전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수용에 동의하고 미국은 대규모 영양지원을 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22일 베이징(北京)에서 북미 3차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음.
-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 틀 속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방미 중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과정은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음.
- 미국은 이에 따라 현재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의 실무접촉을 유지하며



북한의 구체적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토너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를 수용한다는 입장이 확인될 경우 다음달 초·중순에 베이징에서 북미 3차대화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다음달 23일 설을 전후해 당(黨) 대 당(黨) 연례방문 형식으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사절단을 평양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북수의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 중국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방중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조선의 영도자가 편리한 시기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중국은 또 북한 측과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협력 문제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연초 북한에 쌀 등 식량 50만t을 긴급 원조하고 원유도 20만t 이상 무상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소식통은 29일 "중국은 추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각적으로 북한 측과의 접촉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김정은 방중초청과 식량 지원을 놓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러시아는 6자회담 수석대표 등 한반도 업무라인을 조정하고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현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차관을 주(駐) 제네바 대사로 발령내고 후임에 마르굴로프 현 아주국장을 임명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일본은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 틀을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16일께 미국 워싱턴에서 3국의 한반도 정책담당자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과 미국을 방문한데 이어 내달 중 러시아와 일본을 방문하며 외교적 교섭노력을 강화할 방침임.
-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 속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다음달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어떤 내용의 대외·대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한반도 정세흐름을 좌우할 변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으로 달려가는 韓美日..北에 간접 메시지(12/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긴박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미·일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이 첫 교섭상대국을 중국으로 삼고 있어 주목됨.
- 현 국면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전략적 중요도와 역할 비중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임.
-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다음주 동북아 순방에 나서면



- 서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이어 한국과 일본을 순차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 캠벨 차관보가 중국을 동북아 순방의 첫 방문지로 삼은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정세 흐름이 극도로 미묘해지는 현 국면에서 '순방의 순서'가 일정한 외교적 함의를 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총괄하는 캠벨 차관보가 베이징(北京)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됨. 우선 현 시점에서 중국의 상황 인식과 대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후견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북한 내부의 상황과 새로운 지도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가는지는 미국이 동북아 정세의 운용방향과 전략을 짜는데 있어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음.
 - 또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이해를 달성하려면 중국과 '협력'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함.
 - 여기에는 미국 자체의 곤란한 외교적 처지도 놓여있음. 미국은 현재 이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과 한반도 문제를 축으로 한 아시아라는 '두개의 전선'을 동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고 사안의 시급성을 본다면 이란 핵문제 대응이 오히려 '발등의 불'이음. 미국으로서는 일단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를 꾀할 전략적 필요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 또 북한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도 있음. 북한과 가까운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뜻을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해보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도 있음.
 - 미국이 한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중국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와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스탠스를 미국을 통해 비교검증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뒤에 27일 미국 워싱턴을 찾았음. 교섭의 순서상 중국이 미국을 앞섰음.
 - 이 역시 현국면에서 중국을 끌어안는 게 전략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터잡은 것이음. 중국을 통해 남측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임.
 - 또 앞으로 정세의 중심추가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면 중국이 6자회담의 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사전교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서둘러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북한과 중국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도 예정된 일정이기는 했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5~26일 후진



타오(胡錦濤) 국기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음.

- 한미일이 현 국면에서 중국을 끌어안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자칫 중국에 의해 상황이 주도될 가능성은 적극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특히 미·중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독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

● 류우의 “北 초기 상황 원만 관리”(12/29)

-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2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이 최초의 중요한 시기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관리에 어느 정도 전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음.
- 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통일부 출입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황이 장례식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지키면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옳음. 지금까지 가져온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우리가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당장 정책 기조를 바꾼다든지 급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李大통령 통일장관에 ‘상생공영 평화통일’ 휘호(12/29)

-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주무부처 수장인 류우의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한 친필 휘호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직접 쓴 '相生共榮 平和統一(상생공영 평화통일)'이라는 휘호(가로 215×세로 53.5cm)를 액자에 담아 지난 21일 류 장관에게 보냈음.
- 휘호 끝에는 작은 글씨로 '대통령 이명박'과 함께 '辛卯冬(신묘동)'이라고 덧붙여 이번 겨울에 휘호를 작성했음을 밝혔음.
- 상생공영은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했던 대북정책의 모토이며, 평화통일은 헌법에도 명시된 통일정책의 궁극적 목표임.
- 그러나 이 대통령의 휘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대북 유화 메시지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할 수 있는 대목임.
- 북한이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것이 19일이고 그 이틀 뒤 휘호가 전달된 것임.



- 류 장관은 29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휘호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이 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글”이라면서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 류 장관은 휘호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휘호를 받은 21일을 기준으로 “훨씬 전에 쓰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 이전에 작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음. 통일부 당국자도 “김 위원장 사망이전에 쓰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휘호 하시는 이 대통령과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과 주중 대사를 지낸 류 장관과의 각별한 관계도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됨.
-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으로부터 통일부가 친필 휘호를 받은 것은 통일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류 장관은 “휘호 원본은 통일부에 걸어두고, 사본을 하나 만들어 통일전망대에 걸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 캠프, ‘김정일 사후’ 논의 다음주 한중일 방문(12/29)

- 커트 캠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캠프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김정일 사망 이후 이뤄지는 미 고위급 인사의 첫 동아시아 지역 방문임.
- 미국은 캠프 차관보의 3개국 방문을 통해 김정일 사후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3차 미북회담 개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한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임.
- 국무부는 “캠프 차관보가 북한, 버마의 최근 상황을 포함한 광범위한 양자, 지역, 글로벌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들 3개 국가의 고위급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부는 특히 “중국에서의 회담은 글로벌 도전들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 캠프 차관보는 3-4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협의를 벌인 뒤 4일부터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은 6일부터 7일까지 방문함.

● 북한 주재 전 英대사 “변화 일어날 것” (12/29)

- 북한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는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가 28일 전망했음.
- 지난 2006~2008년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에버라드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 맞춰 BBC 라디오4에 출연해 “유엔이 조사해 발표한 식량 문제 등 빈곤에 빠진 경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정치적으로도 북한이 완전히 외부의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전했다.



-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에 다른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음.
- 에버라드는 “어떠한 종류의 변화가 전개될지 말하는 것은 이르나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의 식량 원조 및 핵무기 감축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지난 2001년 북한에 처음 개설된 영국대사관의 대사대리를 지낸 짐 호어는 이날 BBC TV에 출연해 “북한에서 김정일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송된 애도 장면은 주민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일부 연출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음.
- 그는 TV를 보면 추운 겨울 날씨 탓인지 애도하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면서 “잘 조직된 것 처럼 보인다”고 풀이했음.

●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9천700만 달러(12/29)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약 9천7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 이는 지난해의 2천400만 달러의 네 배에 달하는 액수임. 지원국 수도 작년 9개국에서 올해는 20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 늘었음.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가운데 유엔의 지원이 1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EU가 14.7%를 차지했음. 개별국가 중에는 스웨덴의 지원액이 893만 달러로 가장 많았음.

● “北 새지도부, 탈북자가족 산간벽지 추방”(12/29)

-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서 탈북자가 있는 가족들을 산간벽지 등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29일 전했다.
-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당국이) 변경지역 주민들의 수입·지출 내역과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불법 월경 전력이 있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주민, 한국산 물품을 거래한 적이 있는 주민 등도 집중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소식지는 덧붙였다.
- 소식지는 “변경에서 반동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새 지도부는 본보기로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가족을 추방했다”며 “그러나 한국돈 100만원을 뇌물로 주면 추방을 피할 수 있어 탈북자가 있는 가족이 실제 추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 北중앙추도대회 개막…10만명 참석 추정(12/29)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를 위한 중앙추도대회가 29일 오전 11시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막했음.
- 이날 행사에도 평양 시민 등 10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석단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가장 먼저 등장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추도사를 했음.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방송은 전날 김 위원장의 영결식에 이어 중앙추도대회도 생중계했음.

● 北 ‘김정은 영도’ 선언…대규모 추도대회(12/29)

- 북한은 29일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음.
- 주석단 중앙에는 김 부위원장이 등장했고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도열해 '김정은 시대'를 과시했음.
- 최태복 당 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추도대회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의 전도에는 계승자인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며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담력과 배짱을 이어받은 최고 영도자"라고 김 부위원장을 치켜세웠음. "확고히 하기 위해 일심단결을 다져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과 충성을 강조했다.
-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연설자로 나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했음.
- 이날 행사에는 김일성광장의 옆도로까지 인파로 채워져 10만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음.
- 당 창건기념탑,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등 각지의 주요건물 앞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생중계로 전해진 추도대회를 청취했음.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전날 김 위원장 영결식에 이어 이날 중앙추도대회도 생중계로 전했음.
- 이날 정오에는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에서 조포를 쏘고, 기관차·선박 등은 3분간 고동을 울리며, 사이렌 소리가 북한 전역으로 울리는 가운데 전체 주민은 3분간 묵념함.
- 중앙추도대회를 끝으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장례행사를 모두 마치고 내달 1일 당보·청년보·군보에 동시에 실리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정책방향을 밝힘.

● “北, 김정일 영결식 사진 조작”(12/29)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 사진을 포토샵으로 일부 조작해 해외 통신사에 전송했다고 29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음.
-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사진 전문가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이 유럽의 사진 전문 통신사인 EPA에 전송한 영결식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사진 원편에서 남자 6명을 지워낸 것으로 확인됐음.
- 문제의 사진은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행렬이 수많은 추모객의 전송을 받으며 평양 김일성 광장을 지나는 모습을 담고 있음. 눈이 내린 가운데 도로는 깨끗이 정비돼 있으며 추모객들이 도로 양옆에 완벽한 대열을



- 이론 채 늘어서 있음.
-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이 같은 장면을 비슷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에 없던 인물들이 등장함. 이들은 영결식 촬영팀 인 듯 추모객 대열 뒤쪽에서 카메라 주변에 모여 있음.
- 뉴욕타임스는 운구차의 위치로 봤을 때 두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불과 몇 초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 조선중앙통신이 남자 6명과 카메라, 이들이 눈길에 남긴 흔적을 사진에서 지웠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사진 분석 전문가인 하미 파리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사진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조작하는 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파리드 교수는 사진 조작을 너무 빨리해서인지 인물의 다리 부분을 지운 경계가 흐릿하게 남은 등 곳곳에서 조작 흔적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잘 짜인 김정일 위원장의 영결식은 ‘공산국가의 산물’이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영결식 장면을 내보이려고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음.
- 조선중앙통신의 사진 조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지난 7월 조선중앙통신은 대동강 일대에 홍수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걸어가는 장면을 전송했으나, 미국 AP 통신은 이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삭제했음.
- 지난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 전송한 김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사진이나 군대 시찰 사진에서도 조작 의혹이 제기됐었음.

● 北 ‘영구차 호위 8인’ 새 지도부 핵심주체 확인(12/29)

-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서 영구차를 호위한 8명이 김정은 시대를 이끄는 핵심인물임을 북한 매체가 확인했음.
 -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날자 노동신문에서 1면과 3면에 전날 촬영된 영구차 호위 장면 사진을 3장이나 실었음.
 - 노동신문에 실린 이 사진에는 별도의 사진설명(캡션)이 없지만 사진을 캡처하거나 프린트를 하면 ‘김정은 시대를 이끄는 당·군 주요인물’이라는 설명이 함께 나옴.
 - 특히 이 글씨는 북한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글씨체로, 노동신문이 사진의 파일명을 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 글귀가 첨부된 것으로 보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영구차 호위 인물들’이 새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은 이들 8명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전날 영결식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뒤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비서가 서고, 건너편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순으로 도열해 김 위원장 영구차를 호위했음.

- 김기남 당비서와 김정각 제1부국장은 29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도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김 부위원장을 영도자 등으로 호칭하며 충성을 강조했다.

● “조선총련 北조문단 출국 때 3억원 소지 신고”(12/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조문단이 신고한 현금이 2천200만엔(약 3억2천만원)이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조선총련의 조문단은 47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34명이 2천200만엔을 소지하고 있다고 출국 때 신고했음.

- 조선총련 조문단은 남승우 부의장을 비롯한 47명이 지난 23~26일 사이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음.

- 소지 현금을 신고한 34명 가운데 7명은 신고 의무가 없는 10만엔 이하였음. 10만엔 이상 신고자는 27명이었고 이들은 1인당 평균 80만엔을 갖고 있었음.

- 신문은 공안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물가가 낮아 1인당 수일간 80만엔(약 1천80만원)의 체재비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요청으로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조문단 가운데 가장 많은 현금을 소지한 인사는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의 간부로 300만엔(약 4천400만원)이었음.

-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로 무허가로 상거래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현금 소지는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허용하고 있음.

● 한·미 국방 “北, 후계 승계 과정 안정적”(12/30)

-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현재까지는 북한의 후계승계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음.

- 양 장관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각)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와 한·미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그같이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양 장관은 “김정일 장례 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 북한 내부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향된 대북 감시·정찰태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양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 날인 20일 첫 번째 통화에서 장례기간이 종료되면 2차 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었음.



● 통일부 “방북 재개 적극 검토할 것”(12/30)

- 통일부는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류시켰던 방북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방북을 자제시켰던 것은 북한이 여러모로 바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이라면서 “이제 김 위원장에 대한 추도기간이 지나고 정상을 되찾은 만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지난 19일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한 방북 허가를 잠정 보류했었음.
- 정부는 5·24조치에도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전까지 대북 취약계층 지원과 이에 따른 지원물자 모니터링, 사회문화 교류 등을 위한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었음.
- 최 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 “한반도 안정과 질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에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변화가 있으면 유연하고도 기민하게 또 신속하게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관점은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北 주민들, 김정은에 기대와 우려 교차”(12/30)

-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지도자가 역동적인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체제 안정을 위해 더욱 폭압적인 정치를 펼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임.
- 30일 북한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에 거주하며 북한과 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드는 화교(북한 국적의 중국인)들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접한 뒤 북한 주민들이 느낀 것은 큰 혼란이었다고 함.
- 절대 불멸의 존재로만 여겼던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민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고 함.
-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단둥에 온 40대 여성 화교는 “어차피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음. 평양을 제외하고는 일을 해도 배급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북한 상황을 전했다.



- 그러면서 “주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여성은 “밖에서야 3대 세습을 문제 삼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교육을 통해 혁명 혈통의 세습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누구든 배고픔만 해결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뿐”이라고 덧붙였다.
- 그녀는 “김 부위원장은 외국에서 공부해 서방국인들이 왜 풍요해졌는지 알 것 아니냐”며 “폐쇄적이었던 김 위원장 때와 달리 개방에 나선다면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그러나 단둥에 거주하는 또 다른 남성 화교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북한 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험이 일천한 젊은 지도자가 나선다고 세상이 확 바뀌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 그는 “지방에서는 아직 그(김정은)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른다”며 “김 위원장과 같은 절대 권력조차 없으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은 체제가 생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치적 쌓기에 급급해 과거 ‘천리마 전투’와 유사한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려 주민들을 혹사할 것이라는 우려임.
- 화교들은 김 위원장이 오랜 후계자 수업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던 것과는 달리 김 부위원장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 권력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숙청작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애꿎은 주민들도 희생될 수 있다는 얘기임.
- 단둥 주민들도 김 부위원장이 이끌 북한의 앞날에 대해 엇갈린 예측을 하고 있음.
- 한 대북 무역상은 “북한 관료나 무역상들도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김 부위원장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해외 유학파들로 이뤄진 김 부위원장의 젊은 측근들이 힘을 얻게 되면 북한도 중국식 개방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러나 한 택시기사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권력유지를 위한 독재 통치술 아니겠느냐”며 “중국도 공산당 독재로 부패가 만연한 데 북한은 한 가문이 3대째 세습하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北 “李대통령과 상종안해”…17년전 재연(12/30)

-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당과 국가, 군대, 인민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방위가 ‘대변인 성명’이 아닌 기관 명의의 성명을 내놓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임.
 - 이 같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1994년에도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추도대회 다음 날 문민정부의 조문불허를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을 실명비난했고 남북관계는 한동안 악화됐음.
 - 국방위는 주민과 정권을 분리한 조의 표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 남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육해공군의 경계태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악행의 앞장에 이명박 역도가 서 있다”고 주장했음.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역사는 이미 17년 전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자들이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민족 앞에 저지른 대범죄는 반드시 계산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국방위 성명은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변영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우리가 이룩하려는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 평화변영의 대업은 자주, 평화, 통일의 기치따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거룩적인 투쟁을 통한 대업”이라고 역설했음.
 - 국방위는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괴뢰들을 포함한 세계의 어리석은 정치가들에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혀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미국과는 뉴욕채널 등을 통한 접촉을 이어가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대외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방위가 이날 대남정책 방향을 결정해 내놓음으로써 김정은 시대에도 국방위가 최고정책기구로 역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정부 北비난에 “실망스럽다..건설적 태도 취해야”(12/30)**
- 정부는 30일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이번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내용과 표현에서 실망스럽게 본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서도 건설적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은 체제’ 대남 비난 시작.. 협로 예고>(12/30)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거세게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내년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우리 정부의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이 높은 국방위 성명 형식을 취한 데다 '대역죄', '불망나니 처사' '살아 숨일 수 없는 범죄' 등 비난의 수위도 상당히 높였음.
- 이는 29일 추도행사를 통해 등극식을 가진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이 남측에 내놓은 첫 메시지임.
- 북한의 이날 성명은 조문 정국에서의 남측에 태도에 대한 불만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임.
- 앞서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앞서 지난 26일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대국상에 대한 태도가 자기들의 인륜적 한계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척도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정부 당국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임.
- 그러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서도 건설적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 당국자는 “좋은 메시지는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현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정부와 거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음.
-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전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기존 원칙을 버리지 않는 한 북측도 관계개선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임.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밝혔듯이 '말이 아닌 마부를 바꿔야 마차가 바로 간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권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 연구원은 “북한이 남측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하면 받기는 받겠지만,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분야의 남북 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측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면 내년 남북관계는 불안정한 양태를 떨 수 밖에 없음.
- 특히 북측이 차기 정부와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음. 김정은 체제의 군부 강경파들이 충성 경쟁 차원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임.
 - 실제 이날 성명은 우익 단체들의 전단 살포행위를 "추모분위기를 틈타 어리석은 목적을 실행해 보며 급변사태와 체제변화를 유도해 보려는 고약한 속내의 발로"라고 강력히 비난했음.
 - 북한 국방위 성명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유연한 대북 접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은 리명박 역적 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고 비난했음.
 -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성명 끝 부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것"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현을 강조한 대목이 그 근거임.
 -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6·15나 10·4 정신에 입각해서 5·24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남북관계를 할 수 있다면 북측도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측 정부가 현재와 같이 대북정책에서 좌고우면하면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음.
 - 그는 "북측이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면 북측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통일부 신임대변인에 김형석(12/30)**
 - 통일부는 30일 신임 대변인에 김형석(46, 행시32회) 정세분석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음.
 - 이날 통일부 대변인 인사는 기존 최보선(행시 30회) 대변인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임명된데 따른 후속 조치임.
 - 김 신임 대변인은 통일부 정책총괄과장과 경협기획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정세분석국장 등을 역임했음. 통일부는 김 대변인이 당분간 정세분석국장을 겸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軍, 北성명 촉각..감시·정찰강화 유지〉(12/30)**
 - 군당국은 3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강경 성명을 발표한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북 정찰·감시태세 강화 조치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임.
 - 특히 군은 북한이 거친 수준의 대남 성명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판단, 최전방지역의 우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임. 하지만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조 아래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게 북측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음.
 - 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경계태세 상향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북한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쟁 전야의 충돌 분위기를 조성



-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음.
- 군은 지난 19일 전군 경계태세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초기대응반을 운영하고 대북 감시·정찰 강화 조치를 취했음.
 - 지도자 사망에 따른 혼란을 틈타 일부 북한군 작전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조성할 것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지만,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임.
 -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사망 발표 당일 합참에서 긴급 회동,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한·미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각각 평시 상태를 유지한 것도 이런 의견에 따른 것이었음.
 - 군의 이런 조치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보다 수준이 낮은 것이음. 당시에는 '전군특별경계령'에 따라 주요 지휘관과 참모가 자리를 지켰고 전 장병의 외출과 외박, 휴가가 중지됐음.
 - 군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후 취해진 군의 조치는 북한을 자극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이번에는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 외출까지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북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측의 경계태세 상향 조치를 맹비난했지만 따지고 보면 북한군도 남측과 같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 북한군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를 전후로 '특별경계근무 2호'와 '특별근무 지시' 등을 잇달아 발령하고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했음. 이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계근무 강화 조치였음.
 - 특히 "훈련을 중지하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라"는 '김정은 대장명령 1호'가 하달됐는데도 다수 부대가 며칠간 훈련을 중지하지 않은 사실도 나중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군은 김 위원장 장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단된 동계훈련을 재개할 움직임인 것으로 전해졌음.
 - 군은 육·해·공군이 자체적으로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을 자극할 만한 수준의 대규모 훈련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됨.
 -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데 공감했음.
 -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후계승계 과정이 외견상으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권력 암투 등 불안정한 상황 및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있다"면서 "상향된 대북 감시·정찰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남북한 화해·협력 추진 지지”(12/30)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남북한 쌍방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홍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남북한과 기타 유관 각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의 이런 언급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나왔음.
- 북한 국방위원회는 노동당과 국가, 군대, 인민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거칠게 비난했음.
- 우리 정부는 당국자 발언형식으로 북한 국방위의 성명에 대해 “이번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내용과 표현에서 실망스럽게 본다”면서 “그러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응했음.

● <신년사> 김국방 “北김정일 사망 후 불안정 요인”(12/30)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구축 과정에서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날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군은 유동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3월에 개최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군사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옥포대전에서 승리한 후 ‘益勵舟楫海口待變(익려주楫 해구대변. 배를 한층 더 정비해 바다 어귀에서 사변에 대비하라)’이라며 다가올 전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면서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을 강조했다.
- 그는 “적 도발 시에는 제대별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위협 세력이 제거될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음.
- 아울러 “이제 우리 군의 복지와 병영문화도 국민의 눈높이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일 때가 됐다”면서 “의료체계 혁신, 체감복지 개선 등 투명성과 개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김정은, 北우표에 첫 등장(12/30)

-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의 우표에 처음 등장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상을 모신 우표 2종을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했다”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우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함께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모셨다”고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이 북한의 우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음. 김 부위원장에 대한 이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려줌.
- 특히 백두산을 배경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서 있는 그림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이번에 등장한 김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백두산 배경 사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됨.
- 중앙통신은 나머지 1종의 우표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우표에는 태양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모시고 ‘김정일화’와 목란꽃을 형상했다”고 소개했음.

● 北, 김정일에 ‘공화국영웅’ 칭호 수여(12/3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한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명예칭호인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또 이날 ‘천만군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인사’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1975년 2월과 1982년 2월, 1992년 2월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으셨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공화국영웅’ 칭호를 모두 4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했음.
- 북한에서 ‘공화국영웅’ 칭호를 4차례나 받은 사람은 김 위원장이 유일함. 조선중앙통신은 2003년 4월13일 김일성 주석을 소개하면서 김 주석이 1953년 7월, 1972년 4월, 1982년 4월 등 3차례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소개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령’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혁명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밝혔음.
- 정령은 특히 김 위원장의 공적과 관련해 “북한을 핵억제력을 보유한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고 우리민족끼리 나가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셨다”고 평가했음.
- 공화국영웅 칭호는 북한의 각종 명예 칭호 가운데 제일 권위있는 것으로, 주로 체제 보위에 공이 있는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 대남관련 종사자, 인민보안원, 국가안전보위원 등에게 수여됨.
- 김 주석과 김 위원장 외에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이 2중 공화국영웅이고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1999년 스페인 세비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이 받았음.



● 통일부 “방북 재개 적극 검토할 것”(12/30)

- 통일부는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류시켰던 방북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방북을 자제시켰던 것은 북한이 여러모로 바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이라면서 “이제 김 위원장에 대한 추도기간이 지나고 정상을 되찾은 만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지난 19일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한 방북 허가를 잠정 보류했었음.
- 정부는 5·24조치에도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전까지 대북 취약계층 지원과 이에 따른 지원물자 모니터링, 사회문화 교류 등을 위한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었음.
- 최 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 “한반도 안정과 질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에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변화가 있으면 유연하고도 기민하게 또 신속하게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관점은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北권력승계 가속(12/31)

- 북한은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한 지 13일 만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공식승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임.
- 이번 결정은 또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 부위원장에 대한 첫 공식 추대임.
- 북한은 이번 결정이 김 위원장의 ‘10월8일 유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훈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이 참가했다”며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셨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했다”고 소개했음.
- 김 위원장도 1991년 12월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음.
- 2010년 4월 개정된 북한 헌법 제102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



- 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 부위원장의 국방위원장도 겸직도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됨.
-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도 채택했음.
 - 중앙통신은 “결정서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영도자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 신격화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음.
 - 또 “결정서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해 언급하고 해당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나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앞두고 당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구호도 심의해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등의 구호를 발표했다.
 - 북한에서는 매년 새해를 맞아 당 구호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연말에 이를 심의해 발표한 것은 이례적임. 김 부위원장 체제의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임.
 - 특히 이날 구호에는 ‘적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청와대와 침략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는 등 호전적인 대남구호도 등장했음.

● 北 ‘김정일 금화·은화’ 발행키로(12/31)

- 북한이 최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0주년을 기념하는 금화와 은화를 발행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고 금화·은화 발행 배경에 대해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핵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화와 은화는 각각 직경 35mm·두께 2mm, 직경 40mm·3mm 크기로 순금과 순은으로 제작됨.
- 또 원수 복장을 한 김 위원장의 ‘태양상’,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돛’ 문구, 20개의 오각별 등이 앞뒷면에 새겨짐.
- 중앙통신은 이날 ‘평양방직공장’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으로 개명키로 한 상임위의 또 다른 결정사항도 함께 전했다. 김정숙은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자 김 위원장 생모임.
- 상임위는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발표한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명예칭호인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음.



-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김 위원장과 그의 생모에 대한 업적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에 대한 이상화 작업과 '유훈 통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北 김정은 체제 안정 위해 '속도전'>(12/31)

- 북한의 새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권력공백을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음.
- 김 위원장 사망 직후부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호칭을 전대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더니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30일에는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 부위원장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전격 추대했음.
- 북한 매체가 이미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0주년을 맞아 김 부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새 지도자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내년 1월 김 부위원장의 생일이나 2월 김 위원장 생일 등 주요 기념일을 전후로 추대할 것으로 짐쳐졌음.
- 김 위원장도 생모 김정숙 생일에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는 점에서임.
- 현재의 속도라면 곧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 부위원장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도 있음.
- 작년 4월 개정된 북한 헌법 제102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했음. 사실상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조항인 셈임.
- 김 부위원장의 군권 장악은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계승한다는 점도 있지만, 군권부터 가져야 정치적 불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김 위원장이 1990년대 중반 기아사태 때 군을 동원해 사회 이완현상을 막고 체제를 지킨 것과 비슷한 맥락임.
- 김 위원장 영결식 때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이 전부 무장한 호위사령부 군인들로 채워졌고, 영결식 연도에 국가안전보위원과 인민보안원이 아닌 군인들로 채워진 것도 김정은 체제 안정화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 새 지도부의 이 같은 속도전 양상을 볼 때 김 부위원장이 머지않아 노동당 총비서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군권 장악에 이어 당권 장악을 위해 당 최고 직책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임.
-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권력 공백을 메우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신속한 권력승계가 불가피함.
- 김 위원장 와병 이후 불거진 북한체제 붕괴론은 그의 사망으로 국제사회에 확산조짐을 보였고, 북한이 머지않아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아직 적지 않아 이를 잠재우는 게 시급함.



- 북한 내부적으로도 기득권 세력은 물론 주민들도 새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안 지 불과 3년밖에 안된 터라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음.
- 북한 국방위가 전날 성명을 통해 “남조선 괴뢰들과 세계의 반동들은 더 이상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우리의 ‘급변사태’와 ‘체제의 불안정성’을 유도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고 호언했지만, 이는 역으로 북한의 우려를 반증한 셈임.
- 김정은 체제의 안정은 북한 권력층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
-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지탱해온 권력층에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함께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음.
- 권력암투보다는 김정은 체제 안정과 고수가 더 시급해 푹푹 뭉쳐야 하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해야만 함.
- 북한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데서 김 위원장 사망 이전부터 김정은 통치시대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함.
-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3년차 수습’인 김 부위원장에겐 국정 운영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변고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함.
- 북한이 김 위원장의 ‘10·8 유훈’을 언급한 점이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대장계급장을 달고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이 이런 추정에 무게를 실어줌.
- 그렇지만 김정은 체제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내부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 지도부가 의기투합해 권력공백을 막기 위해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에 속도를 내는 것 같다”며 “이러한 단결이 김정은 체제가 안정된 이후에도 지속될지 아니면 장성택 등 핵심세력 간의 갈등이 고개를 들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김정일 ‘10월8일 유훈’ 실체는>(12/3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월8일 남겼다는 유언의 형식과 내용은 뭘까.
- 북한은 30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면서 ‘10월8일 유훈’을 근거로 내세웠음.
- 지난 10월8일 전후의 김 위원장의 공식활동은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한 단천항 건설장 등 함경남도의 사업장 3곳 현지지도와 10일 전한 평양 시내의 태양열설비센터와 양묘장 현지지도가 전부임.
- 이 시기에 노동당 등의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10월8일 유훈’은 북한 핵심지도부 일부만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임.
- 주목할 대목은 10월8일이 토요일이라는 점.



- ‘은둔형 지도자’인 김 위원장은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비밀파티에 측근실세들을 초청해 음주를 즐기면서도 주요 현안을 자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 북한은 이 자리에서 나온 각종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정리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국방위원회 등의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라는 형식으로 노작 단행본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은 당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하는 파티를 열고 이곳에서 나이 어린 후계자 김정일의 미래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사후 권력의 운용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9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도대회에서 김기남 당 비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대장님께 충실하고 그의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음.
 - 또 군을 대표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김 위원장이 생전에 “인민군대가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김정은 대장을 잘 받들고 그의 영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 허약해진 자신의 건강상태를 깨닫고 이날(10·8)뿐 아니라 평소에 자주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불러 후계체제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임.
 - 이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후에 대한 로드맵도 논의됐을 개연성도 있음.
 - 장례기간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장 계급장의 군복을 입고 갑작스레 등장하고, 김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북한 권부의 모습에서 이미 준비된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임.
 - 특히 대장계급장을 단 장 부위원장의 등장은 군 경력이 전무한 그가 군부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김 위원장 생전에 이미 재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 부위원장의 세습체제 안정에 김 위원장의 정치적 권위를 이용하기 위해 ‘10월8일 유훈’을 만들어냈을 개연성도 조심스레 제기함.
 - 후계자로 내정된 지 3년도 안된 터라 김 부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유훈을 만들어냄으로써 김 위원장에서 김 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세습구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임.
- “유니세프, 北어린이 영양지원 지연될듯”(12/31)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의 여파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영양식 지원이 지연될 전망이다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



송(RFA)이 31일 전했다.

- 방송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실시한 어린이들에 대한 예비 영양 실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검증 작업이 김 위원장에 대한 장례일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송은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북한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에 대한 이 기구의 영양지원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유니세프는 지난 10월부터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에서 어린이 영양실태를 조사해왔으며 중증 영양실조 진단을 받은 어린이에게는 치료와 함께 영양강화 우유, 고단백 비스킷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佛紙, 가족 두고 탈북한 오길남씨 사연 소개>(1/1)

- 프랑스의 진보성향 신문인 리베라시옹이 31일(현지시간) 가족과 함께 입북했다가 혼자 탈북한 오길남(69) 씨의 사연을 기획기사로 다루면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일본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 리베라시옹은 이날 8면 전면에 게재한 ‘돌아올 수 없는 평양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씨는 1985년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 반체제 성향을 보인 그를 눈여겨본 북한 공작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아내 및 두 딸과 함께 입북했다고 전했다.
- 오씨는 그러나 1년 후 유럽에서 다른 한국 유학생들을 포섭하라는 북한의 지령으로 다시 나오게 됐을 때 “가족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서 돌아오지 마라”는 아내의 말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탈출하게 됐다.
- 오씨는 이후 국제앰네스티를 통해 가족이 요덕수용소를 거쳐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가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리베라시옹은 오씨가 1993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가족을 돌려 보내 달라는 내용의 책을 내기도 했으나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국의 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 신문은 한국이 햇볕정책 기간에 북한과의 관계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지금도 북한이 별다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소극적이라는 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대북 협상에서 납치된 자국민 송환을 주요 문제로 다루는 일본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 北 신년공동사설 발표...김정일노선 재확인(1/1)

- 북한은 1일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온 국정운영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군 기관지 조선인민군, 김일성사 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동맹 3개지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실었다.



- 이번 공동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가 발표한 첫 신년사임.
- 사설은 “노동당의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이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기존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음.

● “北 김정남, 김정일 사망직후 귀국”(1/1)

- 북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귀국해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으나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있었던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국방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 김정남은 장남인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국방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음.
-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음.
-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음.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국방위원장의 주검과 대면했으며, 수일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돌아가 현재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음.
 -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임.
- 북한 소식통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이론(異論)이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김정남은 수년 전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후계자 레이스에서 스스로 이탈했다”고 말해, 형제간 권력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음.
- 이 소식통은 한국 매체들은 2009년 ‘김정은의 주변 인물들이 마카오에 있는 김정남의 암살을 기도했으나 중국 당국이 저지했다’고 보도했지만 김정남은 이 얘기를 듣고 ‘말도 안된다’고 부정했다고 말했다.

● “北 군인 6명 탈북하려다 2명 피살”(1/1)

- 북한 군인 6명이 지난달 초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접경 지역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2명이 북한 측에 사살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음.
- 1일 이 신문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인 작년 12월 초순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 교외에서 탈출을 시도한 북한 군



- 인 6명 가운데 2명이 북한 측에 사살되고 4명은 중국 당국에 붙잡혔음.
-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식량사정이 악화하면서 병사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살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 현지 중국 당국자에 의하면 탈주병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령 내에 진입했음에도 북한 국경 경비대의 발포로 숨졌음.
- 북한 군인 6명은 탈출 당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에 붙잡힌 4명은 북한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 <北김정은 첫 신년사도 부친 따라하기>(1/1)

- 북한 '김정은 체제'가 1일 처음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은 김정일 시대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었음.
- 북한이 이날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보) 등 3개 신문에 게재한 공동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형식과 내용을 답습했음.
- 그동안 일각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처럼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음.
- 북한이 김 부위원장에게 김 주석의 이미지를 심고 있다는 추정이 근거였음.
- 이런 관측과 달리 북한이 올해도 공동사설 형식을 이어간 데는 체제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또 부친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김 부위원장이 주민에게 육성을 공개하는 등의 과격성을 시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됨.
- 이날 공동사설은 본문이 1만3천자(띄어쓰기 포함) 정도 되는 장문이고 서두에서 전년도 결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관계 등의 정책노선을 분야별로 제시한 점도 기존 형식 그대로임.
- 내용면에서도 군 중심 노선인 선군정치와 강성국가 건설을 여전히 강조했고, 개혁·개방 등의 획기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번 공동사설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일부 등장했음.
- 우선 국가비전과 관련해 '사회주의문명국'과 '강성부흥'이 눈길을 끄.
- 공동사설은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며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밝혔다.
- 이를 두고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대외관계에서 개방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회주의문명국"은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다"며 "사회주의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서 외부와 관계를 풀고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 는 의미가 깔린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음. 공동사설은 또 제목에서 “2012년에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고 강조했는데 이는 작년 공동사설 제목에서 쓰인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표현과 비교됨.
- 북한이 경제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거창한 느낌을 주는 강성대국보다 ‘강성부흥’이란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공동사설은 “인민군대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인민 지향형 지도자로 부각하고 충성과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 이번 공동사설을 1995년 김정일 정권의 첫 공동사설과 비교하면 흡사한 부분이 많음.
 - 우선 김 위원장 사망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한 표현은 17년 전 사설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줌.
 - 올해 공동사설은 “지난해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었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고 했음.
 - 1995년 공동사설 역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최대의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그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표현했음.
 - 올해 공동사설에서 김 위원장을 ‘걸출한 사상이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영장’ 등으로 표현한 것은 1995년 공동사설이 김 주석을 ‘주체의 태양’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이라고 찬양한 것과 비슷함.
 - 김 위원장을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칭한 것은 17년 전 사설에서 김 주석을 찬양할 때 등장한 표현임.
 - 김 부위원장을 부친과 동격으로 표현해 3대 세습을 정당화한 부분도 마찬가지임.
 - 1995년 사설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곧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다”는 문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다”로 바뀌었음.
 - 공동사설은 올해 김 부위원장을 ‘희세의 명장’ ‘백두의 천출명장’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등으로 찬양했는데 17년 전 김 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 ‘친애하는 지도자’ 등으로 묘사한 것보다 표현 수위가 높아졌음.
 - 조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도 17년 전과 흡사했음.
 - 올해 공동사설이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선 남조선 역적패당”이라고 공격했음.
 - 1995년에도 “남조선 통치배들은 동족의 유고에 통일대화의 일방, 민족성원으로서의 조의례절을 지킬 대신 민족의 이픈 가슴에 총부리를



돌려댔다”고 비난한 바 있음.

● <통일부, 北신년사설 “기존정책 노선 유지”>(1/1)

- 통일부는 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해 “김정일 유훈 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음.
- 통일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야별로 기존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음.
- 김정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동일시하며 김정은 중심으로의 단결과 정책운영, 경제부흥 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음.
- 실제 북한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 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면서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다”고 규정했음.
- 경제 부문에서는 주공 전선으로서의 경공업·농업 설정, ‘함남의 불길’ 확산 강조, 식량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강성부흥 전략관철을 위한 총돌격 전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음.
- 또 군사부문에서 선군혁명의 계승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부각했다고 지적했음.
- 특히 대남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4년만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고 평가했음.
- 조국통일 3대 현장과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김일성·김정일 통일 유훈 관철 등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난해와 달리 남북대화나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평했음.
- 대외정책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기본적인 대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음.
- 통일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방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자주·친선·평화 등의 선린 우호관계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특이한 점은 2009~2011년까지 언급했던 ‘비핵화 실현’ 입장 등 핵 문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음.

● 보수단체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1/1)

-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회원 40여명이 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띄워 보냈음.
- 그러나 대형 풍선은 바람을 타지 못해 북쪽으로 날아가지 못했음.
- 이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국민의례를 한 뒤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대형 비닐 풍선 7개에 전단 10만장과 껌라면 36개를 타이머와 함께 매달아 북쪽을 향해 날려 보냈음.
- 전단에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북한 주민의 봉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음.
- 또 루마니아의 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와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



피 전 국가원수의 사망 모습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교수형 장면이 담긴 사진도 함께 전단에 실렸음.

-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공동대표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타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풍선을 날렸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내일 새해 특별 국정연설(1/1)**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특별연설을 함.
-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경제 연착륙이라는 큰 두 줄기의 기조를 중심으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임진년의 국정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 무엇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처할 방안과 향후 남북관계 설정 방향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임.
- 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지만, 북한정권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획기적 제안보다는 정부의 대북 대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한반도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대북기조는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면서 기존 대남정책 기조의 유지를 시사하고 이른바 ‘통미 봉남(通美封南)’전술에 기델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과도 상응함.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신년사설 내용은 충분히 예상한 수준”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만 선불리 앞서갈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 재정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관리와 일자리 창출 대책에 중점을 둔 서민경제 안정화 관련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함께 학벌사회 철폐, 고졸자 취업 활성화, 학교폭력 대책 등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주요하게 언급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4대강 사업 등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음.
- 20분가량 진행될 이번 신년연설은 공중파 TV 3사와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뉴스 Y’를 비롯한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생방송될 예정임.
- 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현충원 참배 등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신년연설 독회에 몰두했음.
- 이 대통령은 독회에서 “한·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대(對)중국 관계를 한 차원 드높일 방안과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 방안을 잘 챙겨달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따라 이번 신년연설에는 대중관계 강화와 관련된 메시지도 주요하



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北김정은, 탱크부대 방문으로 첫 공식활동(1/1)**

-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사망 이후 첫 단독 공식활동임.

-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1960년 8월25일 김일성 주석과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 개시일’로 정하고 있음.

- 김 부위원장이 첫 공식활동 대상으로 제105탱크사단을 선택한 것은 군을 앞세우는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임.

- 김 부위원장의 이날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황병서 당 부부장, 인민군 대장인 박재경·현철해 등이 수행했음.

김 부위원장은 105탱크사단 내 작전연구실, 전자도서실, 훈련기재 등을 돌아보고 훈련실태를 파악하고 장병과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음.

- 중앙통신은 “사단의 군인들은 민족 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찢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역전패당에 대한 하늘에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심을 가슴 속에 안고 전투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영전에 경의를 표시했음.

- 이날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 정치국장 등이 함께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전략적 인내’, 4가지 요소 포함(12/26)**

- 한국과 미국의 중장기적인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4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 CRS는 최근 개정판을 낸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6자회담 재



- 개를 거부하는 것을 이들 4개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이같이 전했다.
- 보고서는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전략적 평가 변화 시도 ▲북한의 도발을 대북 제재 강화 기회로 활용 ▲미북대화나 다자대화에 앞선 선(先) 남북관계 개선 주장 등을 전략적 인내 정책에 포함된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음.
- 보고서는 이어 현재 한미관계가 최고의 상태라면서 이처럼 한미관계가 가까운 것은 상당부분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라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2012년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음.
- 보고서는 "특히 2011년 상당한 모멘텀(전기)을 얻은 한국의 중도좌파 그룹이 대통령직을 탈환하거나 국회의 다수당을 다시 차지할 경우 한미 양자간 협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 국회,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표결 실패(12/29)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음.
-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에 모자란 140명만이 참석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음.
-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투표 개시 선언 후 3분이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의결정족수가 안돼 내일 본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음.
- 고(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의 안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30일 본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음.
-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표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반대 토론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ISD 조항이 실행되고 미국이 단 한 건이라도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은 재협상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부결을 촉구했음.
- 한편 본회의에서는 한미FTA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음.
- 개정안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매출액 5% 감소로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음.
- 또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 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음. 지



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앞서 6월에도 한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상고심에서 법률적인 쟁점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음.

● **오바마, 이란제재안 서명..韓 예외인정 비상(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강력한 이란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음.
-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석유수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한국의 경우 이 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제재 방안은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실제 적용될 예정이어서 준비 시간은 있음.
- 한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제재 조치 적용에서 당분간 유예를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 중인 상태임.
-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두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유예 인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란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대체 수입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은 현재 총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음. 원유 수입 대금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우리의 수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음.
- 이란 중앙은행 제재 방안이 포함된 6천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달 중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음.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알-카에다 요원으로 의심되는 테러용의자들은 무조건 군수용시설에 구금토록 한 것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 조건을 달았음.
- 오바마는 서명 법안에 첨부한 성명을 통해 “내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이 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테러용의자의 구금, 신문, 기소를 규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韓中, 한반도 정세 대응 ‘전략적 소통’ 강화(12/27)**

- 한중 양국은 2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장즈진(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4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이번 전략대화는 김정일 사망 이후 한중간 최고위급 협의일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운용 전반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상황인식과 대응 기조를 조율해내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회담 시작에 앞서 박 차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깊다"면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 차관은 이어 "양국이 공동의 전략목표 하에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양국은 수교 19주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장 부부장은 "양국은 수교 20주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큰 성과를 거뒀고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다"면서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 장 부부장은 이어 "양국관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있다"면서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제때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공통인식을 확인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담에서는 또 김정일 사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요청에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응하지 않아 '핫라인 불통' 논란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음.
 - 우리측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음.
 - 정부는 특히 한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설치하고 불법출항과 무장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양국은 이와함께 다음달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전략대화는 특정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방안과 한반도 관련 협력방안을 놓고 포괄적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로, 2008년 8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 이후 올해로 네 번째임.



● <韓中 “소통강화” 일치.. ‘불법조업’ 온도차>(12/27)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일주일만에 한·중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음.
-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대응방향을 놓고 공통의 인식을 조율하는 장(場)이 마련된 것임.
- 이날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소통강화'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뜨거운 감자인 불법조업 대책 문제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해야 했음. 오히려 중국측은 한국 정부의 불법 조업 단속시 총기 사용'을 문제 삼으며 자국민 보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음.
- 전략적 소통' = 양국이 주고받은 전략대화의 최대 화두는 '소통'이었음.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자는게 핵심 메시지였던 셈임.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요청에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응하지 않아 빚어진 '하라인 불통' 논란을 의식이라도 한듯 양국은 회담 초반부터 소통을 키워드로 삼았음.
-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회담 모두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공통의 전략목표 하에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음.
- 이에 장즈쥘(張志軍 부부장은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제때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음.
- 양측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자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음. 박 차관이 먼저 "연례 개최되는 전략대화를 1년에 두차례 개최하자"고 제의하자 장 부부장은 "앞으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수시로 개최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음.
- 현시점에서 양측이 소통과 협력을 다짐한 것은 '한반도 안정화'라는 공통의 전략적 코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김정일 사후 관련국들이 서로 협력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통제불능의 상황이 조성되고 이는 북한의 붕괴를 비롯한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임.
- 특히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려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한반도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간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데 공통의 인식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임.
- 양국이 정상간 전화통화는 하지 못했으나 20일 양국 외교장관의 유선 접촉, 22일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중 고위급(차관) 전략대화 합의, 내년 1월초 양국 정상회담 개최로 다층적 대화채널을 기동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소통과 협력다짐이 과연 신뢰에 기반한 실질적 협력의 틀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중국이 평소에는 한국에게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며 경제적 실리확대를 꾀하다라도 정치적 선택이 요구되는 결정적 순간에 북한을 편드는 태도를 보이면서 양국간의 신뢰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극명한 온도차 드러낸 불법조업 대책 = 중국 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범인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단속 방침을 설명했다.
-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의 핵심인 총기사용과 상설 협의채널 설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국무총리실은 양국 전략대화를 하루 앞둔 26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양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중국 측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총기사용에 대해 "남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상설 고위급 협의채널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내용의 근본적 조치를 취해나가는냐가 향후 한중관계의 검증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중 FTA = 대화테이블에 오른 중요한 어젠다중 하나는 양국관계의 미래를 열어나갈 어젠다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였다.
- 특히 중국 측은 한중 FTA가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과제라며 FTA 교섭을 조기에 개시하자는 희망을 표시했다.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관련부문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 한중 FTA는 다만 다음달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화된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측 모두 이번 대화에서 내년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 박 차관은 "양국은 수교 19주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장 부부장은 "양국은 수교 20주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큰 성과를 거뒀고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 **李대통령 “中과 평화 위해 긴밀히 소통”(12/30)**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새해 축전 메시지를 교환했다.
-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 면서 “지난 2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더욱 밝은 장래를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 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교류와 협력을 거듭해 좋은 이웃으로 호혜관계를 구축했다"면서 "양국 국민 왕래는 연간 600만명에 달하며, 상호 이해와 우호가 깊어지고 있어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또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는 양국관계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기념하고 우호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후 주석은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가까운 이웃으로 우호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수교 이후 관계는 전면적으로 빠르게 발전했고, 정치적 상호신뢰가 부단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 후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 감정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면서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욱 큰 복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후 주석은 "양국 관계의 발전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고,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편, 양국은 지난 2008년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같은 해 8월 후 주석 방한 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 양국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정상급 회동 29차례, 총리 회동 3차례, 외교장관 회담 21차례를 개최했으며, 1992년 수교 이래 교역액은 63억7천억 달러에서 1천884억달러로 30배가량 증가했다.

다. 미·일 관계

● “日 노다 총리, 4월 방미 추진”(1/1)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이 1월에서 4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 1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4월에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2009년 8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총리가 국제회의 외에는 별도로 미국에 간 적이 없음.
- 노다 총리도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갔을 뿐임.
- 이 때문에 1월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내 정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기했음.



- 4월을 새로운 방미 시점으로 잡은 것은 일본의 2012년도 예산이 3월말에 국회에서 성립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예산을 짰 뒤 4월말이나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임.
- 노다 총리는 이달말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출석하고, 올봄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가함. 5월 말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도 참석함.

라. 중·일 관계

● 中후진타오, 방중 日총리와 오늘 회동(12/26)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2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를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후 주석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그동안 주변국 정상들과의 '논의'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노다 총리와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후 주석은 지난 20일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을 찾아 김정일 위원장의 빈소에 조의를 표시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비추지 않아 왔음.
- 노다 총리는 후 주석과의 회동에 이어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고 다음 방문국인 인도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25일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노다 총리와 1시간여 회담을 하고 북한 정세와 관련해 "현재의 사태에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중일 양국 총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들어맞는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 이 통신은 아울러 유관 각 측이 대화와 협의로 관련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는데 입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통신은 회담에서 원 총리가 "중일 양국이 서로 좋은 이웃이자 좋은 동반자가 돼야 하며 적수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음.

● <日총리 방중...中·日 '실리 챙기기'(12/26)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을 하고서 이틀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음.
- 중일 양국의 내부 사정 탓에 일정 연기 논란을 벌이다가 25일부터 양일간 이뤄진 노다 총리의 이번 방중은 애초 양국 간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변경이라는 초대형 변수 탓에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위원장 공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정치·외교·안보 환경에 엄청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탓에 일본 측은 여타 다른 의제보다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 내부 동향을 청취하려고 애를 썼다는 후문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베이징(北京) 소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면서도 관련국 정상들과 '논의'를 거부했던 후 주석과 노다 총리의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웠음.
 - 외신을 종합해보면 중일 정상 간 회동에서 노다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관련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 싶다"는 '해법'을 내놨음.
 - 후 주석의 이런 언급은 노다 총리의 방중 첫날인 25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음. 원 총리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며 일본에 냉정을 주문했음.
 -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후 주석과 원 총리 모두 노다 총리에게 "일본 등 관련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언급한 점임.
 - 아울러 국제사회는 후 주석과 원 총리가 노다 총리에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을 눈여겨보고 있음.
 - 앞서 지난 20일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여간簾>)외교부장과 장즈진(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한·미·일·러 4국 외교라인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음.
 -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단 일본 정부가 북한의 새 지도부와 '관계'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다 총리의 방중을 통해 중일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평가했음.
 - 노다 총리는 아울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수뇌부에게 북한에 사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거론하고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 후 주석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실리'도 챙겼다는 지적임.
 - 후 주석이 노다 총리의 그 같은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지만 "북일 관계의 개선을 지지한다"면서 "대화과 협력을 통해 (일본인 피랍)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다소 동정적인 답을 해줬기 때문임.
 - 중일 총리회담에서 일본이 중국 국채를 사들이고 교역 때 서로 엔-위안화 결제를 촉진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양국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일본은 중국의 위안화 채권을 보유해 외환 관리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중국으로선 위안화 결제 확대로 국제적인 기축통화로 한 발짝 나아가려는 의지가 공감한 때문이라는 지적임.



- 또 중일 양국은 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와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등의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평화와 협력, 우호의 바다로 하지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소득도 거뒀음.
- 내년으로 다가온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한·중·일 투자협정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서로 진전시켜가기로 한 점도 눈에 띈.
- 중국으로선 최근 미국이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다 총리의 방중 성사를 통한 중일 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쥔 데 만족하는 표정임.
- 중국은 근래 미국이 최근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발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아태의 지도자'로서 복귀를 선언하고 남중국해를 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국과의 '화해 외교'에 주력해왔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왔음.

마. 기타

● “핵안보 정상회의, 완벽 경호속 불편 최소화”(12/26)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단장 어청수 경호처장)은 26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치른 경호안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호안전통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제단은 여러 차례 다자간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다양한 경호 안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 개최를 90일 앞둔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점검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음.
지난 1월 출범한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에 대한 경호업무뿐 아니라 행사 안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범정부 차원의 단일 기구임.
- 통제단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최근 산하에 6개의 기관별 작전분부를 구성했으며, 이들 본부는 27개 유관기관과 분야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전군 대비태세 강화, 주요 시설의 방호인력 배치, 교통상황 관리, 식음료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경호안전통제단은 "완벽한 경호대책을 실현하면서도 각종 통제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교통을 통제하더라도 도로의 전면차단



보다 우회로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등을 통해 제한적이면서도 효율적 통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 또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교통통제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일부 통제는 불가능한 만큼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 ODA 사업 1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12/26)

-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1조9천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추진됨.
-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내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의결했음.
-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ODA 사업 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됨. 무상협력은 교육·농림수산·공공행정·보건 분야에서, 유상협력은 녹색성장·교통·에너지·거버넌스 분야에 중점 지원됨.
-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탈출해 스스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개의 개발경험 사례를 만들기로 했음.
- 민간협력 예산을 올해 대비 116% 증가한 368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또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와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컨설팅 비중을 확대하고 가급적 사업을 대형화하기로 했음.
- 아울러 사업 발굴·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ODA 관계기관 간 상호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ODA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임.
- 부처가 전문성을 활용해 원조모형을 수립, 제안하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ODA 요건 등을 검토해 반영하는 전략적 추진사업 제안 제도를 신설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유무상 공동정책협의 대상국가를 현재 베트남에서 오는 2015년까지 26개국 중점협력국 전체로 확대할 예정임.
-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 점검 결과도 논의됐음.
- 정부는 백화점식 단발성 소액사업 지원이 많아 기금 간 중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포괄적 파트너십, 개발효과성 등 부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ODA 틀 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정책개발 또는 기존 정책 보완작업 등을 신속히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음.

● 후진타오 “한반도 평화·안정은 공통의 이익”(12/26)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관련국 공통의 이익이라고 밝혔음.
- 2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일본 등 관련국과 긴밀한 의사 소통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관련국 공통의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관련국이 냉정함을 유지해가면서 6자 회담을 재개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으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 싶다"고 말했음.
- 이에 노다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과 중국이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 노다 총리는 "납치문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면서 "대화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음.
- 양국 정상은 내년으로 다가온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호혜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음.
- 경제분야에서는 친환경, 금융 등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진전시키기로 했음.
-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를 평화와 협력, 우호의 바다로 하지는 기존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
- 노다 총리는 내년에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음.

● 당정, 中불법조업 근절에 9천324억 투입키로(12/26)

-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천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음.
- 또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먼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임.
-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함.
- 아울러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임.
-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음.
- 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함.
- 기존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음.
- 예산 규모는 총 9천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천84억 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임.
- 임 총리실장은 "인력·장비 보강, 총리 지급·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中장즈쥘 “한중 전략대화 수시로 개최하자”(12/27)

-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7일 한중 고위급 전략대회에서 "앞으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수시로 개최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장 부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전략대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 이는 우리 측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이 "연례 개최되는 전략대회를 1년에 두차례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따른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예상외로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지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양국이 수시 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음.

- 장 부부장은 또 이날 대화에서 한중 FTA가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과제라며 FTA 교섭을 조기에 개시하지는 희망을 표시했음.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관련부문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음.

● “美 캠프, 한중일 방문 北문제 협의 추진”(12/27)

-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프 동아태 차관보가 내년 초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방송이 27일 보도했음.
- 이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캠프 차관보가 내년초 한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 방송에 의하면 캠프 차관보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는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내 혼란 방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는 북한이 새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핵물질이 반출되거나 핵실험 등의 도발행위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한·EU 분쟁해결 패널 15명 확정(12/28)

- 외교통상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할 중재인과 패널의장 1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음.
- 우리나라 중재인으로는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성준 미 시카고-켄트 로스쿨 교수 등임.
- EU도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 소속 자크 부르주아 변호사, 클라우스 디터 엘러만 변호사 등 5명을 중재인으로 뽑았음.
- 5명의 패널 의장으로는 윌리엄 데이비 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비라차이 플라사이 태국 외교부 조약국장 등이 선임됨.
- 이들은 앞으로 FTA 운영과정에서 빚어질 일반분쟁의 중재를 맡게 됨. 중재패널은 의장 1명, 한·EU측 위원 각 1명 등 3명으로 구성됨.
-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들 중재인·패널의장은 법과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로 정부나 여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